

가시자왈 소곱으로 벤 짐 정 들어사는 일

오름
흔디모영
흔저읍서
놀멍쉬멍느영나영
곶다모영
곶지읍서
바당배롱배롱빙삭빙삭
숨비소리아곱다오름
돌하르방돌코롬하다쑥쑥하다
마농문딱오메기올레
외랑외랑오망지다지개지다
코시룽하다하영흔디모영흔저읍서
맨도룽하다
몸국멍샹이바당배롱배롱빙삭빙삭
숨비소리아곱다오름
오멍가멍
곱들락하다
놀멍쉬멍느영나영
돌하르방
돌코롬하다
쑥쑥하다
마농문딱
오메기올레
외랑외랑
오망지다지개지다
코시룽하다하영흔디모영흔저읍서

오름
흔디모영
흔저읍서
놀멍쉬멍느영나영
곶다모영
곶지읍서
바당배롱배롱빙삭빙삭
숨비소리아곱다오름
돌하르방돌코롬하다쑥쑥하다
마농문딱오메기올레
외랑외랑오망지다지개지다
코시룽하다하영흔디모영흔저읍서
맨도룽하다
몸국멍샹이바당배롱배롱빙삭빙삭
숨비소리아곱다오름
오멍가멍
곱들락하다
놀멍쉬멍느영나영
돌하르방
돌코롬하다
쑥쑥하다
마농문딱
오메기올레
외랑외랑
오망지다지개지다
코시룽하다하영흔디모영흔저읍서

오름
오멍가멍
곱들락하다
오망지다지개지다
코시룽하다하영흔디모영흔저읍서
숨비소리아곱다
오름
오멍가멍

곱들락하다
놀멍쉬멍느영나영
돌하르방
돌코롬하다
오메기올레
외랑외랑
오망지다지개지다

곱들락하다
놀멍쉬멍느영나영
돌하르방

오메기올레
외랑외랑
오망지다지개지다
코시룽하다하영흔디모영

제8회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제주어 공모전 수상 작품집

가시자왈 소꿉으로 벤 집 정 들어사는 일

발행일: 2020년 11월 6일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3층)
064-726-9154

인터넷신문 제이누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
엘리시아 아파트 상가건물 6층)
064-748-3883

인 쇄: 일신옵셋인쇄사

(비매품)

이 책의 제목은 2020 제주어 공모전 대상작 김미화 님의 ‘삶’에서 가져왔습니다.

제주의 문화를 담는 그릇, 제주어! ‘살앙 이신 언어’로 미래 세대신디 전승돼시민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 제주어 공모전’이 올해로 8회차를 맞았습니다. 제주어를 박물관이 박제된 언어로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앙 이신 언어’로 확장하고정 헌 시도엿수다. 2013년 인터넷신문 ‘제이누리’가 시작헌 그 작은 몸짓이 이제 나비가 돼영 훨훨 돌아올를 날을 지들렘수다.

2017년부터 제주학연구센터영 ‘제이누리’는 심을 모양 ‘아름다운 제주말·글 찾기 전국 공모전’을 진행헸염수다. 이 공모전은 넘은해7장 동영상 부문이영 글쓰기 부문으로 나뉘 실시헸신디 올해는 학생부광 일반부로 재편헸영 진행헸엿수다. 요영 바꾼 건양 제주어로 창작헸는 것가 어른덜만 헸는 전유물이 아니라 제주어 보전광 전승을 잇어갈 젊은 세대덜신디 잇어져사 헌덴 헸는 취지엿수다. 경 학생덜신디 그 문을 활짝 으난 의외로 성과가 이십디다.

학생부 응모작은 일반부 86펜보다 14펜이 한 100펜이나 접수됐엿수다. 이번 공모전엔양 트난 지역 참가자덜토 하영 이선에 ‘제주어 공모전’ 위상을 확인헸기도 헸엿수다. 응모작 가운데 ‘서툰바치’ 제주어라부난 심사위원덜을 웃이게 멩그는 경우도 셋주마는 제주어로 글 써보젠 헸는 글쓴이의 애정은 수상작 못지 아녀게 커 보입디다. 가심 쩡헌 사연덜, 곱닥헌 제주어가 펠롱 펠롱헸는 글덜토 하덴 헸는 것이 심사위원덜 핼가우다.

경허난 입상작을 모두와 《산다는 건 김금흔 가시자왈 소꿉으로 벤 짐 정 들어사는 일》이렌 허는 일름의 수상 작품집을 내엄수다. 이 작품집엔양, 이번 ‘제8회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 제주어 공모전’ 대상작인 김미화님의 제주어 시 ‘삶’을 포함허영 스무 개의 입상 작품이 실려 잇수다. 1회부터 7회까지 대상 수상작 일곱 펜도 혼디 담앗수다. 책이라부난 동영상을 출품허영 일반부 장려상을 수상헌 강경호 님의 <두릴 때 바룻궤기 낚던 추억>을 혼디 담지 못헌 게 헝쓸 아쉬운게마썸. 지면의 제약 때문에 응모작을 문딱 보여주지 못헌 것이 아쉽고, 죄송허우다.

제주어는 제주 문화를 담는 그릇이우다. 그 그릇인 제주어를 골곡 다깁 미래 세대신디 누대로 전승웨길 간절히 빌엄수다. 8년 동안 제주어 공모전에 혼디허여 주신 으라분덜신디도 지픈 감사를 드림수다. 제주어 공모전이 이루후제 80년, 800년, 8,000년을 잇영 가시민 좋으쿠다.

2020년 11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장 김 순 자
제이누리 발행·편집인 양 성 철

제주의 문화를 담는 그릇, 제주어! ‘살아있는 언어’로 미래 세대에게 전승되기를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 제주어 공모전’이 올해로 8회째를 맞았습니다. 제주어를 박물관의 박제된 언어로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언어’로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였습니다. 2013년 인터넷신문 ‘제이누리’가 시작한 그 작은 몸짓은 이제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오를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제주학연구센터와 ‘제이누리’는 힘을 모아 ‘아름다운 제주말·글 찾기 전국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전은 지난해 동영상 부문과 글쓰기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했으나 올해는 학생부와 일반부로 재편해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제주어 창작이 어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제주어 보전과 전승을 이어갈 젊은 세대들에게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에게 그 문을 활짝 열었더니 의외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학생부 응모작은 일반부 86편보다 14편이 많은 100편이나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다른 지역 참가자들도 많아 ‘제주어 공모전’으로서 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응모작 가운데는 ‘서툰바치’의 제주어라 심사위원들을 웃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지만 제주어로 글을 써보려는 글쓴이의 애정은 수상작 못지않게 컸습니다. 가슴 찡한 사연들, 아름다운 제주어가 반짝이는 글도 많았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평가입니다.

이에 입상작을 모아 《산다는 건 김김흔 가시자왈 소꿉으로 벤 짐 정 들어 사는 일》이라는 이름의 수상 작품집을 냅니다. 이 작품집에는 이번 ‘제8회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 제주어 공모전’ 대상작인 김미화 님의 제주어 시 ‘삶’을 포함하여 20개의 입상 작품이 실렸습니다. 1회부터 7회까지의 대상 수상작 7편도 함께 담았습니다. 책의 특성상, 동영상을 출품하여 일반부 장려상을 수상한 강경호 님의 〈두릴 때 바룻궤기 낚던 추억〉을 함께 담지 못해 아쉽습니다. 지면의 제약으로 응모작 모두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제주어는 제주 문화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인 제주어를 갈고 닦아 미래 세대에게 누대로 전승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8년 동안 제주어 공모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어 공모전이 앞으로 80년, 800년, 8,000년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11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장 김 순 자
제이누리 발행·편집인 양 성 철

차 례

제8회

• 대 상 작 삶 김 미 화 _ 08

❖ 일반 부문

• 최우수작 아버님의 물른 입상귀에 물 흠뻑 주고정 후우다 김 신 자 _ 12

• 우 수 작 식게 먹으레 가게 강 래 화 _ 17

아까운 우리 손지 김 순 이 _ 18

우리 어멍 곁는 소리, ‘날 어떻 낳아신고’ 허 은 도 _ 19

• 장 려 작 스월 부름 질에 사뭇서 김 현 신 _ 24

엥또꼭포 김 순 란 _ 25

겨우살이 양 순 진 _ 27

이넉베끼 엇저! 장 연 심 _ 28

할망나비 손주나비 현 은 지 _ 31

❖ 학생 부문

• 최우수작 숨비소리 윤 은 지 _ 42

• 우 수 작 창공을 바라보니 김 유 진 _ 43

흰 비 이 두 리 _ 44

엥터리 제주말 부 혜 민 _ 45

• 장 려 작 좀녀 놀래 김 소 희 _ 46

술래잡기 김 연 서 _ 47

고사리 장마 김 태 은 _ 48

4.3 고 가 현 _ 49

지실 이 도 경 _ 50

돛박고장 박 예 빈 _ 51

제7회

- 대 상 작 굴툑 강 봉 수 _ 54

제6회

- 대 상 작 “나 초등학교만 땡겨나도 대통령헤실 건디”..... 현 미 경 _ 58

제5회

- 대 상 작 땡~! 으뜸날 아이스케키쏘곰 행복 문 혜 숙 _ 62

제4회

- 대 상 작 바당 엇어시민 어땡 살아시코이? 김 성 춘 _ 66

제3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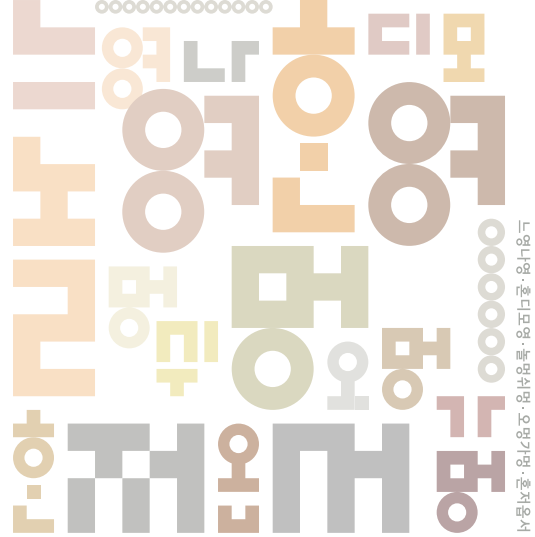
- 대 상 작 와흘 본향당의 기억 반 경 옥 _ 74

제2회

- 대 상 작 무사 유관순이 돌멩일 맞어야 험니깡? 김 혜 정 _ 78

제1회

- 대 상 작 “대한항공 운임 올리난 ㅎ썰 싹 항공도 문딱 다” ... 현 승 도 _ 82



제 8 회



산

김 미 화

산다는 건
금금흔 가시자왈 소꿉으로
벤 짐 정 들어사는 일

가시에 짐 걸렁
이디서도 중꿏 저디서도 중꿏
허운데기도 매어지곡 빈텅이가죽도 뱃겨먹곡

가당오당
베염이 칭칭 사령 신 중도 몰르곡
도체비가 퍼렁흔 불 쌍 지드리는 질

경허여도
기여지
가사만 허는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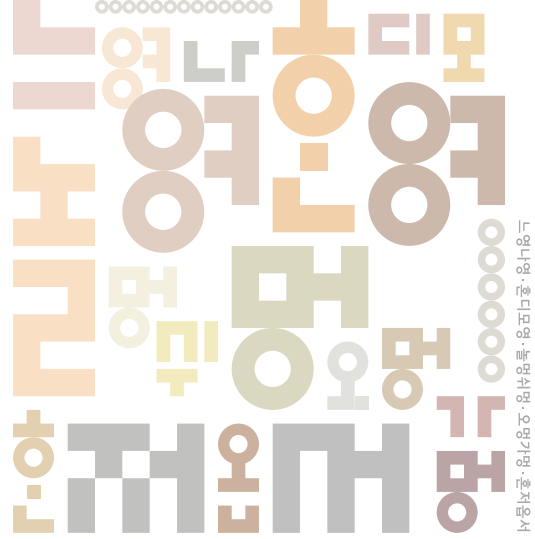
난
오늘도 그 질로 나사사만 한다.
므습고 가심 느착햏여도
뜯 질이 엇어부난

스뭇 줍아틀른 듯 애 아광
목 터지게 울고정 햏여도 울지 못햏단 질
어느젠 지드림에 목므르단 질

이제 완
세월의 뒤안질을 돌아산 보난
울음광 목므름은 어덜로 돌아나불고

새비고장광 안진베기고장
메마꽃에 들맞이꽃꺾장
글메들이명 피는

내 므심 소곰더레
쑥햏게 들어왓인
그 질.



일반 부문

아버님의 물론 입상귀에 물 흠뻑 주고정 하루다

김 신 자

누젠가 ‘나의 본적은 늦은 7월 뱃 뺨는 물론 입상귀여’렝 헛던 말이 생각 났수다. 뽕으민 그자 바사삭 부좌져부는 게 사름덜의 본적지엔 하는 거라마 씸. 나 들민, 잘난 사름이나 할 쫄 부작흔 사름이나 메흔가지엔 하는 말일텨 주. 난양, 요새 들언 영 혼 본적지에 대하여 느랑 생각하여 뵈수다. 질레 뎡기 당 보민 나이 먹은 삼춘덜이 성흔 두 다리로 하간디 돌아뎡기는 게 잘도 블루 와마씸. 지평일 쫘으나, 유모찰 꽃이구테나 꺾닥꺾닥 빙완도 뎡기곡, 하간디 가고정 혼 디도 나상 뎡기는 거 뵈려가민 녀미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웃수다 게. 나신디도 콜롱팔십이 문 뵈여가는 시아부지가 싣수다. 멀쩡하게 정광하 여나신디, 하루 아침에 씨러전 7딱 오뭉을 못하여 노난 녀미 속상하연 죽어 지쿠다게. 나광 정을 들인 아부지가 빼만 과상흔 모심으로 눈만 깜막깜막하고 7웃7웃하는 거 뵈려가민 녀미 애석하고 나 가심이 막 흡파집네께.

우리 아부진 말도 벨로 웃고, 그자 빙색이 웃기만 하는 사름이라양. 메누 리 스랑은 시아부지렝 하는 말도 싣지양? 아부지가 나신디 줌상하게 스랑을 표현할 중은 잘 몰르주만, 난양 진득흔 아부지 모심을 잘 알아집네다게. 나 가 겔흔하연 쳇뭇을 낳앗을 적도 경하엿어마씸. 쳇 손지 낳앗젠 하난, 아부

진 선네선네ㅎ멍 그 먼먼흔 촌이서 택시 대절ㅎ연 빙완에 오랏어마썸. 아부지 양작 손엔 곱들락흔 꽃다발 큰큰흔 거 들린 와신디, 부치로움을 잘 타노난 어멍 이 꽃을 메누리신더레 주코ㅎ멍 막 즈든 생이라양. 아부진 살아생전 체얌으로 메누리 주젠 꽃다발을 사 뵈젠마썸. 꽃집이 어디 신 체레도 몰라노난 택시기사신더레 부탁을 햏엿젠마썸. 꽃 푸는 디부떠 들렁으네 이녁을 산부인과더레 드려다 줍센 햏연 그 귀흔 꽃을 산 온 거랏어마썸. 애기 보레 빙완 왔단 우리 아부지가 오고생이 꽃 든 모십을 본 나 벼은 “야, 느네 시아방 잘도 대단ㅎ다이. 촌에 아방인디 어멍 꽃을 상 올 생각을 햏여신고게. 잘도 췌련 똔게. 난 안죽도 우리 시아방광은 말 혼마디 부찌기가 막 예롭나.” 햏멍 나광 가근흔 아부지 스일 잘도 불루와 햏엿어마썸. 경햏난산지 시집 완 살아가명 서방이 막 밋상블름당도 어진어진흔 아부지의 스랑이 을큰흔 나 믄심을 그득 메꾸와주난 봉당봉당햏당도 어멍어멍 춤안 살앓주마썸.

우리 아부진 아덜만 싯을 뒤서양. 딸이 웃이난산지 집안이 잘도 적적햏여 낫수다. 다덜 지녁아방 님으난산지 말수도 웃고양, 입 딱 중강 줍줍햏여노난 체얌엔 나가 그 집안에 적응이 잘 안똔는 거라마썸. 츄츄 나가 문여 아부지 신더레 말 부찌멍 웃찌는 소리도 햏곡 생언강도 햏멍 막 슬갑게 대햏난 아부지도 그제사 말도 햏썰썉 햏기 시작ㅎ디다. 아덜덜광은 당체 말을 잘 안햏당도 나광은 동네 누젠 어멍햏고, 누게 아덜광 메누린 어멍햏고 이왓을 햏멍 살 앓어마썸. 느랑 조용흔 집안인디 나가 가사만이 왕왕작작이 똔영 사름소리가 나는 거라양. 나가 메누리주만 햏나뻬이 웃어노난 딸도 똔뵈당 메누리도 똔뵈당햏멍 살앓수다.

나 딸이 다썉 슬광 아덜이 시 슬 때, 오누일 어린이집에 똔겨똔 일햏레 똔길 때라낫수다. 먼먼흔 디 혼 시간 넘게 버스 탄 똔기단 보난 우리 아이덜은 어린이집이서 똔 깉등으로 남안 이서낫어마썸. 두 오누이만 밤중꺄지 올렷이 앓앙 지녁 어멍 아방 올 때꺄지 지들리는 모십을 생각햏민 나 믄심이 똔곶 타명 양작 발에 모타라도 둘앙 부영케 돌려가고정 햏엿수다. 췌일놀 촌이 갈 적마다 아덜손진 영 햏엿수다, 딸손진 정 햏엿수다 햏멍 아부지광 혼디 앓앙 주주주주 글아안네곡 햏여나썉주. 경햏여 가민 아부진 챗 손지난산지 아이

털 커 가는 이왓을 더 듣고정 흥영 주주 물어보기도 흥영수다. 흥번은 아버지
 지가 똥금웃이 “유나 어떻아, 요새 중고차 열메나 흥느니. 먼먼흥 디 버스 탕
 왓닥갓닥 흥 생각 말앙으네 중고차라도 어디 흥나 알아보라.” 흥쿠데, “아이
 고, 아버지 똥수다게. 주냥흥명 살아도 모지렐판에, 가남에웃이 차 몰앙 텡
 기명 어떻 샅네까게? 관리비도 만만치 안 흥 건디. 아버지, 말만 흥여줘도 고
 맵수다.” 흥영주마썸. 다음날 아버지 중고차 깡을 알아본 생인고라 돈 삼백
 만 원을 나 통장에 부쳐십데다. 부쩍젠 기벨도 안흥고 메칠 싯단 은행에 붙일
 셴 간 보난 큰돈이 아버지 일름으로 탁 부쳐전 싯 거라마썸. 아덜덜싯더레도
 느시 안 사준 차를 메누릴 위흥영 차를 사줘가난 녀이 고마완 나가 아버지싯
 디 더 잘 흥여야갓다는 생각뻬이 웃엇어양. 그 촌이서 싯들게 농시흥명 애씨
 게 모은 피 곱은 돈을 메누리싯더레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난디, 냉중엔 나도
 그 고마운 아버지 믋음을 잊어볼 수가 웃언 나가 벌어진난 아버지싯더레 본
 에나게 문셀 에왓수다. 아버지가 느시 안 받으켄 흥여도 난양 기분 좋게 아부
 지싯더레 안네고 싯엇어양. 돈도 돈이주만 와릉와릉 돌리는 주동차가 믋수
 완 운전흥 생각은 당췌 못흥어나싯디, 아버지 따문이 십년 넘게 장롱 소곰이
 서 줍자던 멘허증이 시상 베갓디로 나완 운전도 배우게 똤엇수다. “아버지,
 운전흥영 오느디양, 경운기가 날 내무런 미청 넘어사뵈데다게.” “아이고, 기
 가? 그 경운기 우턴 경운기네. 우리 메누리 추물락흥연 녀 나가게 흥영어.”
 체얌으로 초보운전 부찌고 아이덜왕 촌이 갓을 적이 아버지광 곱앗던 말덜이
 요새 들언 자꼬 나 꿇고망이서 감장돌아가난 옛날 생각이 난 가싯이 막 무에
 여졌수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싯지 멧 둘 안 똤 후제부며 잘 먹도 안흥고 놀싯
 여 뵈데다게. “아버지, 영 흥민 안 똤여마썸. 잘 건도 안흥곡 구들에만 들어
 앓앙 이시민 치매웁데다게. 매날 동네 흥 바쿠 빙빙 돌명 하영 걸읍서양.” 주
 꾹디서 아연흥는 어머니가 웃이난양, 깃닥 오몽도 안 흥젠만 흥고 드러널 테
 레비만 보쿠데 촌이 갈 적마다 나가 어머니 대력 준다닐 흥영주마썸. 아버지
 옛날추록 말도 츄츄 웃어지곡 흥숨만 쉽데다게. 어느 놀엔 빙완 가젠 흥난

내풍치명 주멘증도 어디레 놔뒤산지 몰르켜, 지갑도 잊어불엇저 허명 정신이
 왓닥갓닥하는 거라마썸. 빙완 갓단 약봉다리 타 그전 아방집더레 드려다주
 는디, “아부지, 징심 먹영 가게마썸. 뭐 먹구정 허우파? 글아봅서.” “먹구정
 흔 거 웃다. 입맛도 벨로 웃고.” 메뉴리 돈 씨는 거 즈들아지는 생인고라 누
 시 안 먹켄 허여가난 나가 썩썩흔 걸로 글앗수다. “아이고, 게도 글아봅서게.
 아부지. 오랜만이 짜장멘이나 혼디 먹으카마썸?” “오, 그거 좋다.” 허난 착흔
 짜짱멘 집으로 손 잡안 걸어갓수다. 맛존 짜장멘이 나오난 먹기 전이 그세로
 줍질게 쫄란 아부지신더레 안네엿주마썸. 아부지가 찰찰 흘치명 먹쿠데, 휴
 질 물에 허썰 적션 입바울 쿵쿨하게 닦아줘 가난 주인 아지망이 우릴 빈두롱
 이 웨리단 “아이고, 정흔 딸이 시난 하르방 복도 잘도 좋다게. 딸이난 정 입
 도 닦아주주. 어느 메뉴리가 정 찰찰 흘치는 걸 줍상하게 닦아줘게. 메뉴린
 당추 정 안허여.” 영 곤는 거 아니우파? 나광 아부진 그자 빙색이 웃이명 짜
 장멘을 후룩후룩 맛좋게 먹엇주마썸.

아여평어리, 시상살이 근메알명 살아가는 게 잘도 에려운 거 닦아양. 멀쩡
 흔 아부지가 갑즈기 씨러전 불급시리 119에 실려온 거 아니마썸? 중환자실
 에서 흔 둘 산 후제, 일반 병실로 누려왓수다게. 뇌수술을 크게 허여 노난 아
 부진 어둑억 붉악 허당 보민 문 잊어불곡 왁왁하는 생이라양. 게도, 메뉴리
 일름 무신거우파? 글아봅서 들어보민 입만 아웃아웃허명 나 일름 석제를 말
 허여마썸. 난 그게 잘도 고맙고 심이 납네다게. 체암엔 도리쿵쿵허연 중환자
 실 들어갈 적마다 눈물만 잘잘 나오란게마는 요샌 아부지광 장난도 치명 말
 도 허곡 놀레도 불려주당 읍네다. “아부지 아부지, 우-리 아부지. 경운기 탕
 으네 어디 값수과? 경운기 소곱엔 마놓 마놓 실렸저. 농약방 모즈가 잘도 멋
 진게.” 이추록 ‘우체부 아저씨’ 동요에다 나 믹음냥 가살 고찌명 불려가민 나
 도 몰르게 눈물방울이 닥닥 떨어지주만 아부진 잘도 좋아라하는 걸 느껴져
 마썸. 나광 딸이 가민 아부지 눈빛에 느랑 생기가 돌아양. 아부지 양질 누리
 썰어주곡 가심도 독독 두디려주명 놀레도 불려주곡 허당 보민 춤말 물애기
 가 딱로 웃수다게. “아이고, 우리 아방, 잘도 곱다이. 빙완이서 질 민딱하게

잘나신게.” 나 눈엔 펠롱, 나 눈엔 핀찍ㅎ멍 장난질ㅎ여 가민 저 우리 메누리
또시 이녁 거전 방둥이질 ㅎ엿구나 ㅎ멍 해삭이 좋아라 ㅎ네다. 요새 나광 딸
은 들굼날굼 빙완 같 적마다 멘도도 ㅎ여 안네곡 구리싱도 문들문들 불러주
곡 춤생이추룩 쯔쯔쯔 ㅎ에ㅎ멍 오는 게 일이우다. ㅎ다웃이 간벙인이 아모
리 잘 ㅎ여주텐 ㅎ여도 식솔만큼이사 ㅎ네까게. ㅎ를헤원 빙완에 드러넣 사
름 귀경도 못ㅎ곡, 말 ㅎ마디 부껴주는 사름 웃이 시간을 보낸텐 생각ㅎ여봅
서. 나여서도 넘이 곱곱ㅎ곡 메인 목심 닥앙 막 서러울 거 닥아양. 경ㅎ난 일
갓다완 탁 버치고 네큰ㅎ민 오닐은 가지말카 ㅎ당도 아버지가 우리 올 때만
지들렘시카부텐 경도 못ㅎ여마썸. 체얌엔 아버지광 손 잡는 게 잘도 어색ㅎ
엿주마는 쯔쯔쯔쯔 표현ㅎ여 가난 것도 심드랑ㅎ 게 그점저점ㅎ여마썸. “아
부지, 사랑ㅎ엿수다예~ 아버지도 메누리 사랑ㅎ텐 글아봅서.” 아버지가 목
에 고망이 툇라져노난 말은 못ㅎ주만 사랑ㅎ텐 ㅎ는 소리에 눈물이 그랑그
랑ㅎ여양. 울엄직울엄직ㅎ는 모십을 봐가민 나도 울곡 툇도 울곡 어느제민
우리 아버지가 발딱 일어난 걸어질 건고 ㅎ멍 애가 타게 그 놀만 지들렘수다게.

“아버지, 가쿠다예~ 간벙인 삼춘 말 잘 들으멍 이십서예. 또 오커메.” 아부
진 간다는 말에 꺼막꺼막ㅎ던 두 눈도 딱 금아불곡 손도 꺼지락꺼지락ㅎ당도
꺼 심언 ㄴ시 놓질 안ㅎ여마썸. 경ㅎ주만 어떻ㅎ네까. 목고냥이 포도청이라
부난 애기 닥은 우리 아방을 놔똥 올 수 밖에 웃어마썸.

난양 아버지가 나신디 짚은 사랑을 준 거추룩, 나도 아버지신디 더 뜻뜻ㅎ
가심으로 아버지 양질 어름썰어 주고정 ㅎ여양. 그게 어느제ㄱ지 똥런 중은
잘 몰르주만 물그려운 아버지의 물른 입상귀에 물 흠뻑 주고정 ㅎ우다.

“아버지, 부작ㅎ 메누리가 하영 사랑ㅎ시난 확 일어난 또시 짜장멘 먹으레
가게마썸~”

식게 먹으레 가게

강래화

밧디서 검질 메당 왕
해 즈물아신디
고무신 잘잘 꺾으멍 어덜 감신고

한질 념영 올렛질 들어사난
삼춘네 집인게
삼방엔 어른덜 꺾허곡
죽은구들엔 아이덜 솜뽕 담아전
왕왕작작이덜 잘도 놀암신게

추렴허연 갈라온 돛궤기
궤당덜이영 노와 먹을 생각에
경도 지꺼진 우리 삼춘

반 테와줄 때만 동동 지둘리당 보난
어느 절에 무똥엔 공쟁이 울어 제치고

조상님 상에 절 올리는 시간도
끝나불곡
듬삭헌 돛궤기광 쫓지롱헌 바룻궤기
차룅에 솜뽕헌 정기떡이영
곤밥에 베지근헌 솔라니 메역국
춤말로 하영도 츠려신게

꺾슬밤 브름소리 씨녕헤도
식게 먹언 녁넉헤진 배 노리썰당 보민
하간 근심이 돌아나불주

우녁칩 알녁칩
식게 테물 노와주는 정은
수눌음 정 묻어나는 제주 인심이주

아깁운 우리 손지

김 순 이

그만이 앓아눕서 방둥이만 들작들작
옹을옹을 옹아리 어멍 흐는 거 뽀렘만
뽀삭뽀삭 웃이멍 언강도 잘 부럼신게
꼼막꼼막 우리 손지 어질고 착하다

언제민 기어 보코 어멍 주꿏디레 가살 건디
기어보젠 베 길안 풀 젓이멍 가젠 흐민
어멍흐난 뒤터레만 가젠 해점신고
어느제민 어멍 이신 디까지 기영 가지코
어멍 양지 뽀려지민 기자 좋텐 텅삭텅삭

기엿저, 기엿저 우리 손지 기엿신게
먹을 거 안 거르곡 줌 잘 잔게마는
어느 스이 기연이네 어멍 쿨에 안점신게
들썽들썽 자부세광 흐꼼만 더 이시민
통대왈만흔 눈 해둡서 도골도골 움직흔게

우리 어떻 곤는 소리, '날 어떻 낳아신고'

허 은 도

‘제주 여제로 나시민 혼 식솔은 책임져사주’ 허건테 췌그치 일만 허당 보 난, 베랑 배지근흔 일 엿이 올히 예순이 되엇수다. 아은요답 된 어명이영 그 짜 살덴마썸. 덕분에 밤 되민 혼디 자명 어명이 살아온 혼 시상 설룬 이야기 도 하영 들으난 좋수다. 그싸 곱은 말도 잊어불영 곱악곱악 허는 어명이난, 밤마다 곤는 소리가 ‘날 어떻 낳아신고’ 허는 옛날 이악시우다.

동짓달이민 바당물이 파썸 열 때 아니우짜. 혼창 물질허는디 아명헤도 아 기가 어그라 나옴지기, 제빨나게 들락켜렌마썸. “아이고, 이 초라니 곱은 설 룬 아기야, 이디서 나오민 니도 봉먹고 나도 애먹곡, 누게가 베포롱줄은 끊어 줄 거니게. 허썰만 춤앗당 물 배깃드레 가민 나와드라이!” 허명 달랫텐양. 불 턱에 나완 소중이를 곱아입으난 발질을 더 세게 허는 거라마썸. “아고게, 이 디서 나오민 알동네가 다 거느리왕상허곡, 몬들락허게 벗은 날 어떻 저 브름 썰에 들앙 갈 거니? 허끔만 더 지드령, 이왕이민 노고록이 저 동산을 넘어가 보게이!” 허명 막 추구련예. 딱시 줍줍헤진 아기를 얼르명 태와 곱은 배를 끄 사안고, 등땡이엔 구덕지고, 혼 발작씩 조침 걸으명 제우 집그지 기어간마썸. “호오~이, 이제 다 왔저!” 허명 숨그쁘게 정낭을 넘으난, 어따가라, 마당에

서 더운 물이 자락 손아전양. 흠마 나 이름이 배선이나 길동이가 될 뻔 하여 수게.

하여튼 푸더지명 옳더지명 방안더레 들어사난 바라 아기가 나와신디, 딸 이라렌마썸게. 딸, 딸, 딸, 딸, 딸. 다숫째 딸이난, 어명은 하도 는착하고 부 애도 나고, 흠치 귀인닥사니 벗어진 거라예. 혼펜으론 설롭고 매푸곡 을큰도 해연, 핏뎡이를 바라다 지성기에 싼 구들 끝뎡이레 밀려 불어수게. 어명 소문을 들어신고라, 씨어명 왕할망 큰성이 츠레로 들어완 양. 어명 양지는 본 축만 축, 지성기 스굽에서 우는 아기만 미쭈 뵈려뵈, 아뭇 소리 엇이 어그라 가 불언마썸. 어명은 하도 설루완, 메역국도 안 먹고 아기젓도 안 주고, 그자 길력 엇이 올단, 사을만이 눈 광광 오는 바당더레 간, 솜뻑흔 물에 털어젓텐마썸. 아명 칭원혹속상하여도, 사름이 어명 경헤집니까게.

경흔디 머정이 이서신고라예! 아기가 빠져불언 흑썸흔 배로 물에 들어갓당 터올랏당 하는디, 숭상기치 난디엇인 물꾸력이 기썸 얼르는 거라양. 우리 어명은 영락 엇인 해녀우다게. 수웨기기치 들려들언 바라다 물꾸력 몸뎡이를 후려잡안마썸. 아마뎡어리, 늙은 건고라예. 능구렁이기치 폴뚝에 달라붙으명 악적기치 발버둥치난, 어그라 상통이를 뒤퍸수게. 갑제기 데싸진 난리통에 경 안헤도 하늬브름에 올락거리단 저슬바당이, ‘아이고게, 이 조금에 미신 일이니’ 헤신고라. 와락 절지치명 들려들언마썸. 어명은 욱허는 씨어명보다 물리는 씨누이가 더 밍쭈하여, 그자 물꾸력 상통이로 출썸대는 바당물을 이신 심 다하여 패대기쳐수게. 물꾸력이 느랏흔난 그제사, ‘이 저슬에 무사영 귀흔 물건이 나 손에 걸려신고’ 하는 썸이 들언마썸. ‘어명 살코’ 하던 무음이 베롱헤지명, ‘살아사주’ 하는 생각이 머지직하게 드는 거 아니우파. 경흔난 딱시 살아보젠 꾸물락대는 물꾸력을 기만이 들려싸돈 와랑와랑 집더레 돌려왓텐마썸.

화룩하게 방더레 들어사난 갑제기 금착도 하고 즈들아짐도 해연, 술째기 지성기 소굽을 들썸연 봐수게. 경도 허카양? 아기가 어명을 뵈리명 빙색이 웃어렌마썸. “기여기여, 설룬 아기야. 미한하다이!” 구실리명 오기생이 콤에 안안, “니 복이여!” 추구리명 올엇텐 험수다. “그추룩 곱들락헌 아기를, ‘아이

고명아, 나 강생이로고나!’ 콧지를 못헤연 드르쌍 내분 게 어떻사 칭원하던 지… 이추룩 다 늙엉이라도 니영 그찌 살아지난, 더 부리는 원이 었다. 니영 나영 설룬 거 아난 하늘님이 도왔주!” 허명, 저곳디레 왕 으시룩하게 콤어줍 니께.

우리 므을 사름덜은 나한터 효녀렌 험수다만, 흠치흠치 아니우다. 어멍이 지성기를 물에 적셔당 이디저디 널어놔민 막 왜올리멍 준다니험 때가 하마 씬. 요새덜은 물건이 하도 잘 나와부난 종이 지성기라도 을마나 돈돈헉니까 게. 경흐난 어멍 므음엔 오줌 흥쓸 묻은 거랑 어그라 뿔앙 몰려그네 다시 써 사키여 흥 겨주마씬. 그걸 번쩍 알멍도 슬쩍기 치와불지 안흐영 바라다 눈 앞 이서 허데기멍 어멍을 비치릅게 험수다. 나 두릴 땐 어멍이 모멘으로 지성길 만들앙, 똥을 무룩하게 싸곡 오줌을 발락하게 싸도 물에 뿔앙 여라번 씻주마 씬. 경 헤 노난 당신 지성기도 주제 엇이 뿔앙 쓰젠 흥 겨 닥수다. 백 설 다 된 할망이 노망으로라도 주냥허젠 흥 겨난 외려 고맙수텐 흥여사 될 건디, 거스로 답달을 험시난 불효가 멩백허지 않으짜?

이왕 어멍 소리 나온 집에 나 두릴 때 이에길 흥썰만 헤보쿠다예. 우리 집 은 아덜 둘에 딸이 일곱이난 동네서 우릴 칠공주렌 불러수게. 경흔디 곧지 좋 텐 공주이주, 스실은 일꾼이라마씬. 제주 속담에 ‘딸 나민 두새기 잡앙 잔치 허곡, 아덜 나민 주름팍 찬다’는 말이 딸을 위헌 소리가 아닌 건 알암수게예? 춤말은 ‘딸 셋이민 흥 헤에 밭 흥 파니씩 산다’ 듯이 일을 부려먹젠 흥는 겨주 마씬. 경 생각할 수베끼 엇인 것이, 우린양 새백이 일어나민 학교는 미신, 천 리만리 밭더레 돌려가십주. 어두룩흥 밭디 강 보민, 어느 저르에 통개에 물질 어 놔 똥 갈중이 걸치멍 돌려간 우리 어멍이, 눈 뿔라지게 골갱이로 빌레왔을 좇암서마씬. 게민 우리도 어그라 종애 구부령 앓앙, 손바닥이 꿩이지게 지신 검질을 흥디 맵니께. 헤가 벌정하게 올라오민, 당번이 출려 온 보리밥 흥 두 적 재게재게 먹영, 그슴이 벌러지게 학교로 내들읍니다.

그추룩 학교를 다니난양, 2학년이 돼도 글을 몰란마씬. 그땐 글 므르는 아이덜은 ‘부진아’렌 흥영, 학교가 므쳐도 딱로 남앙 공부를 더 베와십주. 칠관 그득 글재를 하영 써 낵, 선생님이 막맹이로 흥나흥나 그리키멍 멧 번씩 읽

어준 후제, 우리한테 차례로 읽어보렐 험니께. 경흐민 주신 이신 아이부터 손들영 줄바로 읽으민, “통과” 흐명 먼저 집에 가렐 허주마썸. 난 무사 경 뚜렐 7치 명칭혜신고양? 눈을 버롱하게 텅, 선생님 곧는 소릴 흐건 알아듣젠 숨죽이명 보려봐도, 흠치 그 글이 뭇싼디 모르쿰디다게. 발디 늦영 가민 틀림엇이 우리 어명이, ‘알녁집 맹올이는 혼참 먼저 와신티, 니는 무사 영 느렁테고? 작산 비바리가 빌락빌락 가달춤이나 흐민, 이 어명은 일버치곡 용심나곡, 어떻 살렐 험시니. 느네 어명 몸뚱아리에 구경이 드랑드랑 흐지 안혜시나. 학교 끝나민 간세다리 7치 허천 배리지 말앙 발바닥 붕물게 발더레 돌려오라. 어명 야게기가 더 7늘아지기 전이!’ 흐명 답달을 헤여마썸.

기영 존다니를 듣는 거사 경흐가 흐영 춤으민 그만이우다만은, 우리 어명 애죽으명 뚝 줄줄 혈 생각흐민 7슴이 독근거리곡 브작브작 애가 브뽀니께. 경흐난 글은 몰라도 요령껏 읽는 소리를 외와수게. 칠판 가운데 글은 ‘철수’고, 누단착 끝대이엔 ‘바독이’여 흐명마썸. 경 외왕 통과되민 ‘각등은 아니여’ 흐명 놀개기 돌은 거추룩 지꺼지게 발더레 내돌아십주. 그때 우리 아방은, “공부는 아명헤도 좋으난 어떻어명 학교 간판만 따라. 졸업장을 받아사 동창이 생기느네. 난 학교 마당을 못 뵈아보난 갑장은 이서도 동창이 엇저. 나만 몰명흐텐 돌라진 거 다투 설룰 때가 하라. 니네덜은 동창회도 흐명 그냥저냥 보통으로만 돌라붙영 살라이!” 흐명, 공부 못 혼 멘박을 주지 았읍디다게.

흐여튼 글을 모르난 동네 강생이 7치 왁왁하게 교문을 드나들어신티, 어느세 2학기가 되연마썸. 학교 운동회도 끝나시난 요즘 곧은 7슬이우다게. 때맞춰 7슬틀젠 흐민, 게나제나 7냉이 손이라도 빌렐 조코 7리 비곡, 깨도 털곡, 콩 두드리곡, 감저 파곡, 절간 흐명, 돌이 붉으민 밤에도 뺏데기를 좇을 때라마썸. 하이고 그때사 제주 사름덜, 밤낮 엇이 일만 일만 흐명, 죽을 때 7지 오몽허지 안혜수과? 우리 어명썸은 물때 보명 바당더레 돌아강 어그라 물 질혜영, 다시 발더레 돌아왕 흐던 일을 먼저 혜시난마썸. 그날도 부진아 교실을 흐느디, 어명 생각을 흐난 숨이 막 보타오명 목가슴이 미여지는 거 아니우과. 눈에 물이 수팍흐난 갑제기 눈앞이 보~영 흐명 우상하게 글재가 읽어 집디다게. 기찻길, 친구, 강아지... 아이고, 소망일엇저! 어그라 손을 들언, 나

가 읽어보켄 해수게. 선생님이 그리키는 이 글재 저 글재, 하나토 틀림엇이 문딱 알아지쿰디다게. 선생님을 보난 늦이 흥썰 불강해연, ‘자이 이상흔 아이여’ 흥듯 미신 걸 슬피는 눈치라예. 경해도 모른추록 책가방을 출런 부리나게 발더레 돌아불어십주.

이틀날 일기장을 검사하던, 선생님이 쿠상헌 목소리로 나를 부름디다게. 아시날까지 글도 잘 못 읽단 아이가 어떻 이추록 하나토 틀리지 안 해영 잘 썸시넌마썸. “게때양. 이제까진 글 읽는 법을 줄바로 몰라신디, 요령을 알아 지난 전깃불 싸민 흰흥듯이 글재들이 제절로 보염수다.” 이영 여망지게 대답을 해수게. 어떻 보민 역불로 지드리멍 준비흔 말추록마썸. 스실은 글재를 몰르는 나도, 오죽 오고답답해실 겨우파. 그때 일기장에 쓴 글이 나상엔 이 시상에서 체얌 써본 ‘동시’렌 흥는 겨우다. 제목은 ‘연필’마썸. ‘우리 어멍이 물 질해연 슬째기 사당 주신 연필, 멍심흥영 뻘뻘글글 글재를 써봐수다. 반아 쓰기 재미진 거여 흥멍 쿵삿허게 웃는디, 아시가 이녁도 써보켄 돌려들언마썸. ‘안돼여 나 거라. 거꺼진다’ 흥멍 곱지난, 앙작허멍 웨울루단 해뜰락 뒤싸져 불언. 어크거 아멍 밍죽흥여도 흥는 수가 엇언, 니 가지렌 글으멍 바라다 줘불어수게. 시상에 공거가 좋기는 좋은 겨우다 예. 뭇똥그튼 눈물 주베기가 거짓갈추록 뚝!’

한갑의 고갯마루에 올라산, 기영저영 걸어온 질을 느려다뵈수다. 흥녁은 웃둑지가 올라가곡 흥녁은 야게기가 숙여점수다게. 어떻 엇어시민 어떻 살아 시코양? 이제랑 우리 어멍 날 낳을 적 일을 그슴에 새경, 흥다 춤아가멍, 역불 와리지 말앙, 흥껏 다가지게, 문딱 콤어가멍 노고록흥게 살아사키여 생각 흥염수다. 어멍이 그치 사는 날 끝까지 흥루흥루 코삿흥고 쿠싱허게 발롱발롱 웃어가멍. 아적마다 해가 트민 ‘오늘은 미신 베지근 흥 일 이실 건고’ 지드리멍 지꺼지게 살아보젠마썸.

수월 브롬 질에 사들여

김 현 신

느신디서 오몽흐지 못흐는 것도
홀긱홀긱 눈질 혼 번만 지드리는 것도
아명치도 아니하게 빙색이 웃어줘시민 흐는 것도
스랑흐는 믿음 흐나 따문이주
눈물즈베기 여룩여룩흐느 양지 얼끗얼끗
숨에 들러귀는 원담 어염이 눈질 돌려도
설룬 시간에 증가정 하우작거리던 그르
히려사 홀 이왁이 너미도 하신디 입도 증가정
시추렁흐 브롬절에
들구 베르싸지는 사오기 고장썸만 져는 수월

영또폭포

김 순 란

영또가 터젯구나
시원하게 터젯구나
근고정 혼 말 다 곁고
울고정 혼 믋심 실컷 울었구나

팡팡 울어 불라
양작 흥멍 울어 불라
발 도당귀멍 울어 불라
이제 울민 어느제 또 울 것고
울어질 때 울어 불라

영또가 울엄신게
팡팡 내 터지멍 울엄신게
가심소곱 담앗단 설룬 말덜
시원하게 터전 곁암신게

영또더레 걸라
영또 말 들으레 걸라
영또 눈물 받아주레 걸라

춤아왔던 매운 눈물
천길만길 내터진다
가두왔던 설룬 말덜
천장만장 울뤄운다

〈표준어〉

영또폭포

김 순 란

영또가 터졌구나
시원하게 터졌구나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울고 싶은 마음 실컷 우는구나

팡팡 울어 버려라
소리치며 울어 버려라
발 구르며 울어 버려라
이제 울면 언제 또 울 것인고
울 수 있을 때 울어 버려라

영또가 울음 운다
팡팡 내 터지며 울음 운다
가슴속에 가두었던 서러운 말들
속 시원히 토해낸다

영또폭포 가자
영또 말 들으러 가자
영또 눈물 받아주러 가자

참아왔던 매운 눈물
천길만길 흘러간다
가두었던 서러운 말들
천장만장 천둥처럼 울음 운다

겨우살이

양 순 진

는 알았시냐?

춤장에 직산하영
뽕낭에 직산하영
초낭에 직산하영

스계절 느랑
눔흔티 의지하명 살아도
지녁 일름 번득하게 그지고
동차게 살아가는
낭을 알았시냐?

눔이 집이 세 들언 살아도
기십 죽지 안하곡
봄이는 양증맞은
노리롱흔 꽃 피우고

그슬 들민 알알이
노리롱흔 올매 올명도
이디저디 드러내지 안하고
엇인 듯 속심하연 살아가는 낭

브레지 못하는 곳디
튼튼 곱안 지내멍
심 엇인 사름덜흔티 상내 느와주고
근심 한 사름덜흔티 웃음 주는 낭

는 알았시냐?

이녁베끼 엇저!

장 연 심

점점 짐치 멥글아줄 사름이 엇어점수다. 서방이영 조케덜이 좇는 할망표 짐치는 요즘 여름을 타는 시어멍이 멥근 오이 짐치영 양념게장이 대신허는 중이우다. 일 년에 혼 번 먹던 친정어멍표 짐치도 친정어멍이 파업허는 덕분에 이젠 엇수다. 이젠 느네가 알앙 짐치 담앙 먹으렌 허멍 상 먹는 것도 좋을 거렌 허는 충고만 남앗주마씨. 짐치 멥글 때 들어가는 양념이영 고생허는 거 생각허민 정말 상 먹는 것이 멧 배 더 남는 장사 닥긴 허우다.

영허던 나가 갑제기 무신 브름이 불어신디사 이십 년 지기영 마트에 갓당 할인 배치 세 포기에 짐치 멥글기에 도전장을 내고 말앗수다. 배치 겉껍데기를 뱉겨뿔 어튼 세프의 손놀림추룩 소금을 빼영 멧 시간 절엇주마씨. 뿔치, 다시마, 다마네기 그튼 것덜 들어간 육수를 멥글앙 양념장을 멥근 다음 쉼우리영 배치에 버무리난 흥뽀 짐치 숭내 나는 나 인생에 첫 짐치가 멥글아졌수다.

그게 무신 일이넌 허멍 배랑 심들지 안헐 거렌 생각헤신디 안 쓰단 근육이 노래어신디사 준등이도 아프곡 종에도 저리곡 치울 일도 한한헉디다. 경해도 생애 첫 짐치를 담아서난 조출현 기념 파티라도 허고정 허연 돛궤기 솥곡 막 걸리 사곡 새우젓 허경 양념장도 멥글앗수다. 경행 두가시가 지꺼지게 잔을 자울엇주마씨.

술은 사람을 솔직하게 뽕근텐 해신가마씨? 잔을 자을일수록 결혼 생활 20년 만이 처음 듣는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뵈수다. 결혼허기 전이 남편은 벗안티 빌려준 돈도 못 받국, IMF로 삭감뵈 월급 때문에 결혼이나 해질 건가 허엿텐 험디다. 경해도 나가 괜찬여텐 결혼허켄 헨 허썸 놀랏젠 허는 말도 곁읍디다. 이제까장 그런 말은 혼번도 안 헨게마는 발음이 허썸씩 꼬이고 목청이 높아지명 우리 집 마리는 남편의 웃음으로 들썹거렷수다. 이런 저런 말을 곤단 보난 건강에 대한 말까장 곤게 뵈어신디 갑제기 남편이 메칠 전이 헨 건강검진 이야기를 꺼넵디다. 생전 처음 허는 수면 내시경이라부난 긴장을 하영헨 건 알앗주마는 나름 걱정이 뵈신디사 인터넷으로 수면 내시경해난 다음일을 하영 읽은 생이우다. 헛소리를 허거나 무신 말을 곁아신지 몰르켄 허는 말이나 줌든 수시에 무슨 일사 벌어질디 불안허텐 헨 말이 하영 이서난 모양이라마씨. 늡신디 헐리 내는 것도 싫어허곡 신세 지는 건 더 싫어허는 서방은 마취가 깔 때 무신 말을 헐지 불안허여난 거 닐아마씨. 괜헨 말 곁앗당 책 잡힐 거 닐고 썰 데 엇인 말 곁앗당 뒷일이 걱정뵈난 미리 입단속을 허기로 헨 모양이우다. 티비 예능 프로에서 수면 내시경을 허엿당 마취 깔 때 모습이 너미 웃기게 나오기도 허곡, 눈물샘을 자극허영 진심이 나오는 거추룩 온 국민을 상대로 사기 아난 사기를 쳐시난 내시경 처음 허는 뵈가 구린 우리 서방이 걱정헐 건 당연헨 거 아니우파?

결국 회사 직원들이 문딱 모영 수면 내시경에 대한 비상 회의를 허고 경험담을 나뵈텐 허난 첨, 헐 일도 엇인 생이라마씨. 아니민 정말 나가 몰르는 비밀이라도 이신 건가마씨? 나가 알지 못허는 재산이라도 따로 챙겨놔시민 지꺼질 일이주마는. 가시눈을 허영 서방을 췌려보는디 뜻밖의 말이 터져 나옴디다. 상사가 머릿속으로 외우렌 헨 말. 더꺼진 돌문을 으는 알라딘의 주문구튼 그 말. 그건 생각허지도 못헨 ‘이넉베끼 엇저!’ 엷수다. 이넉베끼 엷다니 이건 무신, 나 아니 다른 여즈가 엷텐 허는 말산디사, 서방 즈꼳디 이서줄 사람은 나베끼 엷텐 허는 것산디, 나가 그디 이서췌에 고맙텐 헨 말인디사 원!

아멩해도 머릿소곶으로 되뇌다 보민 눈 떠실 때 이 말이 저절로 입 베곶덜로 처음 나올 거렌 헨 알팍헨 계산이 이신 의도적인 말. ‘이넉베끼 엇저!’ 양

지가 별정해진 서방은 이 말을 몇 번 연습하였젠 허명 나 얼굴은 뵈리지도 못 허명 자백을 험디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무화과’엔 현 그림책 소꿉에 ‘비보’가 이녁 소원을 시꾸젠 매날 밤 거울 보멍 최면을 걸어신디 결국 이녁이 질루는 강생이 ‘마르셀’의 꿈이 이루어졌텐 허는 이야기가 생각납디다. ‘비보’는 신비현 무화과의 비밀을 알게 뵈언 줌자기 전이 이녁 스스로 최면을 걸엇수다. 지중해에 궁전 님은 집이영 배영 멋진 개영 산책허는 허황된 꿈을 말이우다. 우리 서방도 수 면에서 깨나명 무의식의 심을 빌령 이벤트를 헐 요량이라신디 신기루에 그치고 말앗수다. 아쉽게도 그날 우리 서방은 ‘○○님, 일어납서’ 허난 갑제기 눈을 번쩍 뜬디다. 경허고 그만이 나를 베리멍 이제 시작헐 거넌 들읍디다. 꽃 낫젠 곱아도 믿어지지 안허는 고라 허천베리당 나 손 심영 옷 갈아입영 그냥 나왔수다. 경허고 이녁이 무신 말 곧지 안헤시넌 진짜 아무 말도 곧지 안헤시넌 듣곡 또 듣곡, 솔찍허게 곱아드렌 귀찮게 허여신디 이제 보난 무사 경헤신디 알아질 거 님수다. 서방의 상사가 전화 오난 난 농담으로 ‘딴 여즈 일름 곱 아시민 불써 이혼헐수다’엔 곱아신디 이런 협동작전이 이서신 중은 정말 까맣게 몰랐수다.

우리 서방을 불안허게 현 건 무엇이라나신고예? 난 진실을 좇는 집요현 탐정추록 계속 추궁을 헐엇주마는 벨다른 소득은 아쉽게도 엇엇수다. 게나저나 헐꿈 아쉽긴 허우다. 이런 꿩꿩이가 이서신줄 몰르곡 서방이 눈 뜨멍 ‘이녁베끼 엇저!’렌 곱아시민 헐꿈 쟁피허긴 허여도 지껴지지 안헤시카마씨?

내년에 나가 수면 내시경을 받아사허는디 걱정이우다. 난 어떤 말을 준비 허여사 허는 건고마씨? 나가 눈 떠실 때 제일 처음 만나는 사름이 우리 서방 일 거난 어떤 말로 나의 진심을 은근슬쩍 무임승차시킬지 고민허여 봐사쿠다. 경허영 어수룩헌 서방추록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닌 약간 연출헌 거 님아도 나만의 드라마를 멩글아봐사쿠다.

서방의 ‘이녁베끼 엇저!’ 헤프닝은 흥겨운 술자리의 재미난 안주거리엿주마는 경헤도 난 그 마음이 진심이렌 믿엄수다. 술이 깨곡 마취에서 깨도 이 시상에 우리 서방신디 난 항상 ‘이녁베끼 엇인’ 사름이 뵈길 간절헐게 바람수다.

할망나비 손주나비

현 은 지

1

“나양...”

할마님은 부에나젠 흐는 걸 혼나게 춤으멍 손을 쥐엿수다. 춤고 춤앗당 경
흐당 말헨마씀.

“전쟁 때 일본놈들이 깃어강 막 그추룩 고생허멍 살앗주게.”

할마님이 그때양 막 칭원한 말 허영예 나 막 울어집디다. 경해도 춤으멍 행
사를 진행해산다고 눈물 끌어주는 영민 성님 엇어시믄 끌어박아정 울어실 거
우다. 할마님은 조곤조곤 다 곶아똥 무대에서 내려왔수다. 성님이영 나영은
마이크에 땡 곶안마씀.

“아흔 넘어도양 이추룩 힘내쥬 할마님 고맙수다.”

“고맙수다양 삼촌.”

공연까지 흐고 평화나비 월례행사가 끝났수다. 평화나비 벗들하고 할마님
하고 무시거 먹으레 간마씀. 할마님 뜨게 먹엄시난 세월이가 그저끼 곶앗던
이야기 계속 곶아달렌 흥예헨마씀. 세월이렌 할마님 하영 따르는 아시이십
니다. 할마님도 세월이가 나 오라비허곡 또래렌 막 아까웁흐고마씀.

“가만 이서 보라이. 그전이 어디까지 말해져신고.”

2

헌 삼년 전에 나는 이디 저디 땡기멍 그거 글로 뱌겨 보젠 여행도 다니멍 해봣수다. 경상도에 단양이라는 디서 느낌보강이라는 디 보멍 글 쓰당 강원도 춘천도 가고 햏당 서울도 땡겨왔주마썸. 서울은 현주 성님 만나레 간 거마썸.

봐지난 “성님” 햏고 부르멍 한숨에 달려강 지꺼정 안아수게양. 현주 성님 이영은 내창에 몸곰으레도 곶이 가던 사이주게마썸. 성님이 서울 가서부난 막 오래간만에 보는 거엿수다. 어땡 살암신지 곤당 서울 와시난 책방도 땡기고 롯데타워도 들렷수다. 놀암신디 막 용심난 우리 할마님신디 전화왔수다.

“이년 생긴년이, 너 누게영 곶이 이시냐. 땡심햏라.”

할머니는 나가 이런 디 저런 디 땡기는 거 막 싫어햏고 저들앗던 거마썸. 경해도 나는 이십대에는 이런 디 저런 디 땡겨야 배워진텐 생각해부난 “알앗수다게.” 곤고 말앗수다. 그 다음날은 고등학교 동창 유진이 만났수다. 청주 서부터 서울깃장 나 보젠 올라온 거마썸. 합정역 조끄뜨레 이신 하늘공원햏고 홍대 보고양 저녁되난 숙소에 가젠 햄신디 유진이가 숙소에 가지말앙 클럽도 가보자고 햏는 거 아니우짜. 나는 한 번도 땡겨보지 안헤난 디라 무소 왕 안 가젠 햏수다. 겐디 유진이가 청주서 서울깃장 올라와신디 곶이도 못 땡기냐고 거느리난 속숨햏영 갓주마썸.

3

할마님은 다랑곳 조끄뜨레에 이섯던 족은 집에서 살앗다는 이야기로 곤기 시작햏수다.

“나는 햏끄만한 집에서 어땡이영 둘이 살앗어. 그전이는 둘만 이섯던 것은 아니주만은. 나는 위로 오라방이영 성님도 이섯어. 아이고, 막 어릴 때여부난 난 우리 아방은 어느제사 죽어신디 기억도 안나주게. 경해도 그 일 나실 땡

어명이영 둘이 살고 이섯어.”

할마님은 세원이 손 심으멍 골앗수다.

“우리 강생이가 지금 막 오래 살앙 열 술인디 나는 그때 우리 강생이 나이
엿주게. 오라방은 징병 나가고 성님은 인칙 시집강 육지 갓어. 어느 날 성님
이 물애기 낳앗텐 들엇주게. 나는 막내여시난 조캐가 막 궁금행 어멍 앞드레
자빠지멍 가쿠다 가쿠다호고 골아신디 어멍은 ‘작산 게 출람생이마냥! 고만
히 이시라.’ 호고 앙살 호멘. 아지망들이 우리 집 와근에 어멍신디 성님이 물
애기 낳고 아팠텐 곁는 거라. 나신딘 곱지젠 혜신디 어찌어찌 들어서 멧 날
메칠 울엇주게.”

할마님은 저들랑 성님신디 가젠 혜도 어멍이 시대가 어떤 시덴디 작산 뜰
을 혼자 보내저게 못 보내주.

“경호고 이신디 조끄뜨레 부름씨 탕겨오다가 아즈방 보이는 거라이. 켜당
은 아닌디 한 동네 곶이 사난 아즈방 아즈방호고 불럿어. 벤조롱한 아즈방이
여신디 그 아즈방이 날그라 아즈방네 뜰도 우리 성님 이신 서울 살암신디 볼
일 이성 뜰네 집 탕겨올 거렌 나도 곶이 갈래호고 편드렁 호영 곁는 거라. 나
는 열 술 먹은 막 두린아이여시난 귀가 달코롬헛주게.”

할마님이 ‘나 엇어지른 어멍 지들릴 거 아닌가.’ 생각헛시난 그 아즈방이엿
호는 사름이 ‘서울 멀다는 건 옛날 말이고 일뤼동안이른 다녀오주게. 서울 가
른 성님신디 어멍한테 소식 전해달렌 곶으면 될 거 아니?’ 호고 다올렸수다.
경행 할마님이 그 아즈방이엿 호 사름 따라 갓덴마썸.

4

나호고 유진이는 곱게 화장호고 쫄른 치메도 입고행 차렸수다. 노픈 신 신
영 놀멍놀멍 걸엄신디 클럽 앞이 남자엿 여자엿 흘 거 엇이 하영 줄서 이섯
고, 문 앞이는 베 봉탱이 소나이들이 이십디다. 안 가본 디 가젠 호난 믇숨 타
멧도 곶이 줄 서 이섯수다. 호꿈 이땅 나호고 유진이호고 들어가젠 베 봉탱
이 소나이들 앞이레 강 마음이 들력퀴는디도 속숨혀염시난 왼손드레 도장을

찍어줍디다. 경 흐영 안으로 사름덜 디밀어 갓수다.

클럽이영 혼 디를 처음 와신디 실망이엿주마썸. 텔레비로 베린 거추룩 세련된 것도 아닙디다. 그디가 그답디다. 왕왕작작 흐난 썬올러야 들리주 속숨행 말흐른 뉘렌 곶암신지 들리지도 았아마썸. 경해도 유진이 기분 맞춰주젠 흐끔 들럭퀴다 자리 앓앙 술 두어 잔 주문헛수다. 알딸딸헛신디 오라비 동환이신디 전화오는 거 아니마썸.

동환이랑 나랑은양 경 싸우멍 자랏주만은 스무 살 넘어서 대학 뎡기고부턴 서로를 지들리멍 막 아꼈수다. 나는 오라비가 육지 강 잘 살암신가흐고 지들리고 동환이는 켜당 중에 날 못살게 구는 하르방이신디 그 하르방이 또 거들락 거렘신가 지들렛수다. 나는 어릴 때부터 언강 좋아부난 켜당 삼촌신디 막 인사하고 오라방, 성님신디레도 장난치는 사름마썸. 경해도 지희네 하르방신디는 말도 안곤고 흐엿수다. 전엘랑 다른 할망 하르방신드레 흐는 거랑 마찬가지로 인사흐고 언강도 부렛수다. 경흐디 작년부터양 몯쓸 말을 하도 하영합디다. 처음에는 ‘소나이 만남시냐?’, ‘시집가 불라.’ 흐멍 곶안마씨. 그뎡양 ‘아이고, 이 하르방 술 마시난 들럭퀴는구나’ 흐고 속숨헛수다. 경흐디 점점 곶으면 안 되는 말만 곶라서 곶으멘마씨. 어느 식겅늘은 삼촌들허고 아즈망들 모다져 이신 정지에서 나드레 들으렌 ‘애나 확 배불라.’ 흐고 곶읍디다. 그 말 듣고 우리 할마님 막 부에냥 대판 싸울 뻔도 헛수다. 아직 스무살 신디 곶을 말은 아니주게. 경 흐 뒤로 나는 그 하르방 이신 디랑 피해다넛수다. 아뎡 피헿 뎡겨봐도 그 하르방은 거렁청흐영 식겅늘 나가 정지레 가든 정지레 방디레 가든 방디레 따라오멍 구진 소리 곤는 거 아니우짜? 우리 집은 큰 집이영 식게가 하영 이서부난 더 흐연마썸. 어느 늘도 그 하르방 피헿 방으로 와신디도 쫓아 왕 곶읍디다.

“여기가 너 방이냐?”

“예, 맞수다.”

“나가 밤일랑 이디 오켜.”

“츄마가라. 밤에 무사 와마썸?”

“밤에 산드레 가자이.”

나가 벽드레 대고 곶암신지 아무리 곶아봐도 듣지 않는 하르방이난 경찰에 신고하여 불카ㄱ장 생각하였수다. 춤고 춤앗당 아방신디 곶아수다. 아방은 ‘니가 춤으라 장난헐시네.’ 심드렁하게 곶으멍 ‘니 행실이 그 모양이난 경하는 거 아니냐?’ 하고 오히려 용심넙디다. 난양 막 울어짐직하여도 속숨헐수다. 믿음시난 곶암신디 오히려 나 행실 탓하면마썸. 나는 콧 되싸지고 싶습디다.

춤으멍 지내당 저슬 들언 켜당 오라방 장가가는 날 동환이가 군에서 휴가왔수다. 곶이 잔치 텅겨오멍 곧당 보난 지희네 하르방 이야기도 곶아져분 거 아니우짜. 심드렁할 거렌 생각헐신디 막 들릭퀴멍 놈도 아니고 누님이 성희롱 당하는디 가족들이 춤고 이시넨 용심내멘마썸. 우리 오라비 그 길로 달음 박질하여 그 하르방 좇아낸 딱시 우리 누님신드레 감장들민 죽여볼कु다 하고 썰울렷수다.

5

“간세 하지 말앙 재게 오라게.”

“아이고, 아즈방, 감수다.”

그 아즈방은 할마님을 하영 다올렷수다. 열 술 두린 아기발로 산 타는 것사 힘들주만은 아즈방은 할마님이 몽켄다고 다올립디다. 가달이 아령 앞드레 데 싸질 것 닙아도 춤으멍 산을 올랏수다.

하영 올랏다 생각이 들 쯤에 철조망이 보엿텐마썸. 할마님은 나무 옆이 걸러정 앗앙 흐썸 숨 고르멍 이런 디 이서신가 하고 얼랍젧수다. 아즈방은 그 철조망신디레 힐끗 뵈리더니 어욱 하영 이신 디로 할마님을 디밀엇수다. ‘무사 영헐수과?’ 곤는 할마님을 갑자기 와썸 안앙 옷 뱃젧텐 헐디다. 강알이영 어디영 손 넣영 문딱 만점시메 할마님은 무슨왕 들릭키지 안허쿠과? ‘영하지 맙서.’, ‘살려줍서.’ 빌기도 하고 고사리 손으로 밀치며 썰울르기도 헐수게. 아멩헤도 열 술 아이가 이겨지쿠광? 할마님도 동네 아즈방이난 믿음 따라와신디 경 뵈수다. 할마님은 뭇 십년이 지나도양 철조망 흐썸 옆이 이신 어욱

어염에서 양 팔을 한 손으로 콕 심영 눈물범벅인 임텅이영 야게기영 베랭이 모양으로 훑던 그 상판을 똑똑히 기억헐텐마썸.

할마님은 ‘이제 끝이여.’ 헝곡 생각헐수다. 그 도새기새끼 강알 들력켜는 것광 숨 몰아쉬는 것이 즘즈름해지난 ‘이제 끝이여. 어멍 이신 집드레 갈 수 이시켜,’ 헝곡 생각헐수다. 머리가 허영게 돼 ‘집드레 가사주.’ 헝는 생각만 들엇텐마썸. 경헝디 이건 시작일 뿐이엇주마썸.

그 놈은 피 흐르는 할마님 가달을 버선 베경 닦더니 딱시 철조망드레 디밀고 조끄뜨레에 상 그 더러운 굴레로 휘퐁툭 붙엇수다. 경헝난 무신 일본 순사 두 명이 나왔수다. 어멍신디 일본 순사 베른 무조건 피해산다헝고 들은 할마님은 금칙헝연마썸. ‘이제사 악몽 끝낭 집드레 돌아갈 수 이시켜,’ 헝는 믿음이 흔들리난 눈물로 베리지도 못헝던 눈이 베려집디다게. 그 놈신디 일본 순사들이 일본어로 무신거엔 굴으는 틈에 무작정 뛰엇텐 헝디다. 어디로사 뛰엄신디 거념해질 겨우파? 그냥 무작정 아래로 뛰엇텐마썸.

6

유진이신디 헝썰 이시라 곱아두고 전화 받고 헝저 끓영 자리로 돌아왔수다. 와신디 유진이가 엇인 거 아니마썸? 어드레 가신고 하니 조끄뜨서 해또록헝 소나이 두 명이영 빙삭이 웃으멍 소곤닥헝덴마썸. 나는 뎡겨보지 았은 디난 민망헝영 술 대신 물만 쫄락쫄락 먹엇수다. 나신드레 베리는거 닥앗수다만은 못 본추록 헝멍 다른 디 베리는 척헐수다. 유진이도 유진이라. 곤젠 헝 거 다 곱앙 혼자 오주만은 소나이 두 명이영 자리레 곱이 왔수다.

처음엔 진혁, 승현이렌 소개헐수다만은 술 마시니 츠마가라 서로 민영, 영석이렌 부르멘마썸. 경헝도 그 해또록헝 소나이들은 클럽을 하영 다닌 생이라 이런 저런 말 재미지게 곱앗수다. 나사 민망헝난 속숨헝영 물만 마썰수다. 게난 그 소나이들이 물 말앙 술 사크메 술 곱이 먹자고 헝멘마썸. 나가 뤼렌 곤지도 았아신디 술 사러 갓수다. 유진이는 저 오라방들 어멧헝냐 물어 뵈주만은 나는 고명말멧 헝텐 곱앗수다. 들엄신지 말암신지 유진이는 막 지

꺼져 보이는 거 아니잖? 그 두 오라방이 돌아왕 비싼 술이렌 우리 잔드레 버레기 따랏수다. 나는 처음 본 사름신디 얻어먹는 게 불편헿 입만 축엿수다. 근디 점점 아무거옴 곱아도 귀눈이 왁왁헿영 무신거옴 곱암신지 모를 정도 연마썸. ‘하영 마시지도 았아신디 무산고 이상헿다.’ 헿수다.

7

할마님은 손수건을 꺼낸 눈물을 닦읍디다. 세원이는 그런 할마님을 꼭 안아주엿수다. 그디 이신 사름은 문딱 속숨헿명도 분노헿고, 곱이 울음 터진 연수가 히끄대는 소리만 들렷수다. 헿쫘 숨 곱랑 할마님이 딱시 말썸헿엿수다.

“뒤도 베리지 았고 무작정 달음박질헿저. 죽을 힘을 다해 달렘신디도 그 아즈방이영 일본 순사의 욱 섞인 목소리가 점점 조끄뜨레 오는 거 님지, 가달사이는 욱썈거리지, 눈물은 계속 흘령 앞도 베리기 힘들지, ... 경헿도 죽기 살기로 달렷저. 경 달리당 하늘도 무심헿지 낭뿌리에 걸령 멧 바퀴를 구른 거라. 귀마리도 썸썸헿헿 헿엿고 하근 디가 아팠저. 낭에 박아지멧 멈추난 온갖 디가 튼튼헿 디도 숨쫘르멧 낭 뒤트레 이 한 몸 곱져보젠 헿연. 헿쫘 고만히 이시난 패들락 거리는 발자국 소리와 목소리가 윙이서 들리는 거라. 난 하도 뛰어헿기는 심장소리가 바깥디 들릴카부텐 독막름 안은 풀에 힘 쫘어. 그 아즈방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가도게 움직여지크냐? 한참을 그디 곱앙 썸주. 이젠 되신가 헿영 속숨히 야게기 들영 베려서. 경헿당 놀랑 소리도 못질령 뒤로 자빠지고 말앗주.”

할마님은 먼 디 바라보멧 옛날의 이녁을 안쓰러운 눈길로 바라보앗수다.

“한 스무 발자국 떨어진 디서 일본 순사가 이디를 베리멧 서 이신 거라. 그겿도 바지를 내령 히죽히죽 웃으멧 자위 헿는 채로. 경헿 잡혀갓주.”

8

데멧이가 복삭헿 기분이양 들엿수다. 암만 잘 베려보젠 헿도 부영헿엿고

하근 디 늘씩혀연. 앓은 채로 온 몸이 이레착 저레착 혀는 걸 민영이영 혀는 오라방이 잡으멘양. 정실 출리젠 집중홀 때만 잠깐만 베려지고 그 직전7장 나가 뭐험신지 기억나지 앓앗수다. 그 소나이가 뭐렌 곁는 거 닳은디도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도 앓앗수다. 점점 주위가 온통 암흑으로 깔렸수다.

머리가 쑸뻑쑸뻑 혀영 겨우 눈을 떠신디 침 보는 디에 신 거 아니우짜? 아 이고, 무신 일인고 혀고 이불 걷으난 소중이영 뭐영 문딱 벗영 이섯수다. 가 달 사이도 막 쑸뻑혀고예. 온 몸이 알리고 ㅁ습기도 행 눈물만 납디다. 무신 정신이 섰는지 유진이 찾앙 어찌어찌 경찰서에 갓수다.

난양 가족들 보난 춤앓던 울음이 터집디다. 신고혀고, 증거 채취헌텐 검사도 하영 받는 동안 매순간 주저앓고 싶언마쑼. 치욕스럽고 칭원혀연 그만 두고 싶엇수다. 게도 영행 그만혀믄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춤앓수게.

9

평화나비 월례행사가 이섯던 날로부터 삼일 후, 할마님께서 쓰러지섯수다. 고령이신 할마님은 메칠 동안양 제대로 음식을 드시지 못헸수다. 물 한 모금 넘기는 것도 버치곡 주사바늘을 꽂고 지내야 혀연마쑼. 난 할마님의 삶이영 나 삶에 대해 생각헸수다. 할마님은 위안부, 난 성폭행 피해자우다. 이걸 할마님과 나가 특별한 사름이라서가 아니우다. 시대가 바뀌어도예 여자덜이 살면서 당혀는 크고 죽은 성추행, 성폭행들은 시여마쑼. 이를 바꾸젠 할마님은 평화나비에서 목소리를 내고, 난 성폭행 당한 사건의 진실을 널리 알렸수다. 또 이를 도와주젠 영민이, 세월이영 오라비 동환이추룩 현 스나이드 남녀 헐 것 엇이 힘 쓰는 거 아니쿠과.

할마님이 쓰러지신지 일주일 후, 할마님은 기적추룩 멀쩡헤지션마쑼. 할마님은 아침부터 머리를 곱딱혀게 빗어 넘기고 단정한 옷을 입으섯수다. 경혀고 평화나비 회원들을 부르섯수다. 그간 가족들만큼 맨날 병원에 왕 할마님 간호를 도운 회원들이우다.

“앞으로는 어떻 할 거냐?”

“아이고, 할마님. 우리신디 말경양 흐썬 쉬십서. 건강해야 앞으로가 이실 거 아니우파.”

“헤볼 수 이신 건 문딱 헤사 나중에 후회흐지 앓을 거 아니냐? 정 헤사 나 비들도 나를 따라오주. 할망 나비가 이추록 힘차게 나는다...”

그날 저녁 할마님은 손주인 날 따로 불린마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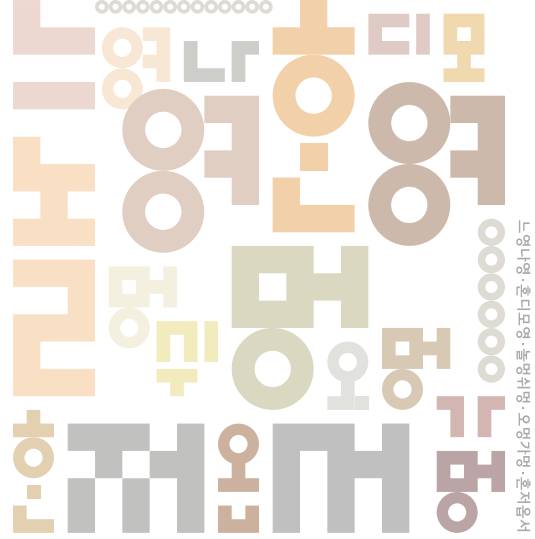
“멩심흐라. 니가 속숨흐믄 과거가 되풀이 되는 거 잊어선 안 된다.”

그 몰썸 남기고, 다음날 아침에 할마님은 결국 돌아가셨수다. 일본의 위안 부 인정이영 공개사과를 한 달 앞두고 돌아가션마썸. 할마님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대변하신 것은 소수가 겪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우다. 크고 작은 성추행, 성폭행들을 당하는 모든 여자들의 삶마썸.

10

나는 단상 위레 올라갓수다. 단상 위에서 부에나젠 흐는 걸 혼나게 춤으멍 손을 쥐엇수다. 경헨 그 마음을 춤고 춤앗당 목소리에 담양 말헨마썸.

“저희 할마님은양 일본군 성노예엿수다. 경헨도 할마님은 이녁추록 상처를 갖고 평생을 살아오신 할마님털을 위허영 용기를 낸마썸. 경흐고 손주인 나는양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 피해자우다. 할마님에서 손녀로 이어진 성폭행 피해, 이는 결코 우리 집이만 불행한 우연이 겹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우다. 모든 여성들이 살아가며 크고 작은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을 당하고 이서마썸. 경흐난 나가 용기를 냅수다.”



학생 부문

숨비소리

제주여자고등학교 2학년 윤 은 지

별이 과랑과랑헌 흐룻 날
흐늘이영 바당이영 문딱 좋으난
조끄뜨레 오민 절이 더욱 잘 보이주게

할망, 즈낙에는 무신 걸 먹으코?
손지 녀석의 말에 할망은 움짱 못헨 살암서라

게메, 우리 똥강생이 들코롬헌 거 좋아허민
전복죽이영 뜻뜻하게 끓여 맨도롱홀 때 먹여야주

호오이- 호오이-
숨 넘어가키여 바당 밖으로 나오니
흐꼼씩 브름이 물웃을 말리젠 흐네

나는 좀녀 바당의 딸
만경창과 이 한 몸 바당에 내던지주

묵직한 테왁 들고 가는 할망
손지 기다리난 돌으멍 돌으멍 감수다

창공을 바라보니

국립공주대학교 1학년 김 유 진

창공을 요만이 내어
바라보니

뭉갈뭉갈
고사리바독에
고사리 과작 올라왔다

칼칼
건들마가 나를 찾아온다

흔저 읊서예
파도가 가명오명 인사한다

히죽히죽
돌하르방이 나를 보고 언강 부린다

속옷 바람으로
집 평상에 걸러지니
비자낭 아래 사노릉허영
좋다

돌탑에
돌 데며 두다
어릴 적 튼낸다

동제 맥이멍 호호 키운
우리 어명
손심고 싶다

소중헌 제주도
소중헌 내 고향

흰 비

서귀포여자중학교 1학년 이 두 리

돛박고장 피었저
푸린 봉오리가 별정허게 벤허엿저

부름 7찌 돌려든 난리통
죄 엇인 사람덜 피눈물이여

돛박고장이엿 문딱 별정허게 피는 건 아니여
세도 못 허는 사람덜이 히양허게
일름도 잃어 불었저

저실 가곡 4월 들건
잊어 불지 말라

빨경헌 돛박고장
히양허게 벤헌 돛박고장 말이여.

엉터리 제주말

가톨릭대학교 2학년 부혜민

우리 아빠는 나보고 맨날
그렇게 헬랑헬랑해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 한다

그러는 아빠는 술을 하영 마셔서
배가 정말 큰큰허다
흐뭇 큰 것도 아니고 춤말로 큰큰허다

아빠랑 같이 있으면 세상이 족잡해
내가 헬랑헬랑한 건
아빠 때문에 땔라져서가 아닐까?

또, 아빠의 괄괄한 목청은
잠자는 나를 금칠락 놀라게 한다
아빠, 술술 얘기해줍서

경해도 아빠의 큰큰한 배와
괄괄한 목청이 잘도 좋은게마쓰
나라도 좋아해줘사주 어떻헉니까게

만약에 다음 생이 있다면
아방의 딸로 다시 태어나면 좋으куда
영원히 아방의 강생이로 살게

아빠, 스랑험수다
말해신디 잘 모르는 거 뉘안 말험수다.
아방도 나한테 스랑헌덴 글아봘서

나는 오늘도 아빠한테 배운
엉터리 제주말을 쓰멍
이렇게 하루를 보낸다

잠녀 놀래

서귀포여자중학교 1학년 김 소 희

우리 물질 끝났
잠녀 놀래 불른다

누가 더 하영 잡아신가 세보멍
잠녀 놀래 불른다

전복, 구쟁기 하영 잡아
부제 댜게 땡글아 달렝
소원 곱으멍 잠녀 놀래 불른다

술래잡기

한라음초등학교 2학년 김 연 서

술래가 가차이 오난

가심이 벌렁벌렁

땀이 주룩주룩

술래에게 심지켜!

빨리 뛰어

폴숨 곱앗다

고사리 장마

한라음초등학교 2학년 김태은

봄에 누리는 고사리 장마는
고사리 키를 쑥쑥

게실게실 고사리 장마는
고사리 섭을 돌돌

어디 이수꽂?
어디에 이수꽂?

애기 손바닥 그튼 고사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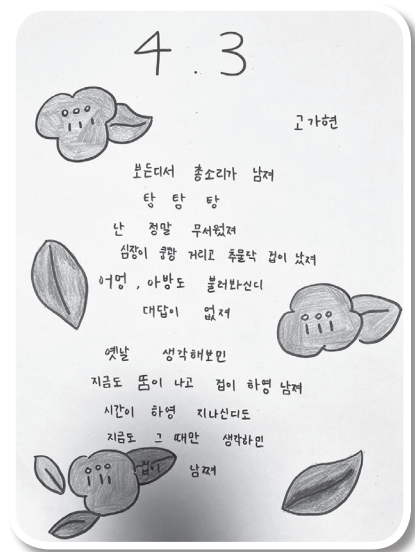
쫓아수다!
아꼬운 애기 고사리

4.3

서귀포여자중학교 1학년 고가현

부든 디서 총소리가 남저
탕 탕 탕
난 정말 무서웠저
심장이 쿵광거리고 추물락 겁이 낫저
어멍, 아방도 불러봐신디
대답이 었저

옛날 생각해 보민
지금도 뚝이 나고 겁이 하영 남저
시간이 하영 지나신디도
지금도 그때만 생각허민
겁이 남저



지 실

울산여자고등학교 2학년 이 도 경

검은 토양에 밑거름 부어
비닐 우로 싹이 나면 꺼내어 북준다
땅 열매 자라나 지실 맺으면
장에 앉앙
직각 쥐어주며 또시 꼭 읊서양
왕 갈랑 감서 외쳐댄다
우리 아털 딸한테 두 개 주민
세 개는 옆집 예펜 준다

땅 열매 먹고 자라난 아이
너븐드르 아래에 웃고 잇네
그때 옆집 물애기
이제는 어멍 곤밥 위에
돛괴기 올려놓고
헌저 왕 먹읍서 하네

지실 심을 봄이 왔네

검은 하늘에 새백 바람이 녹불어
물애기 울어젖히면
얇은 흙벽 너머 애타는 예펜
굴절거리며 무신 일이라, 울러대게
등거죽 두드리며 울음소리 죽인다

돛박고장

서리포여자중학교 1학년 박예빈

곳곳에 총소리가
탕 탕 탕! 무섭게 울려 퍼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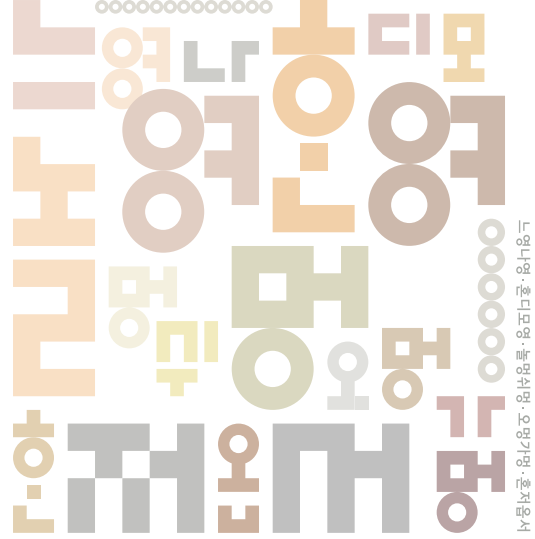
사름털의 비명소리가 울리고
애기털의 울음소리도 울려했다

총소리가 끝나고
새빨강케 물들여진 그곳엔

돛박고장털이 곳곳에
새빨강케 털어져 이섰수다

땅에 털어져 잇던
돛박고장털은

그 땅에 누워잇던 사름털광
그치 누워 이섰수다



제 7 회



굴 툇

강 봉 수

아멩 착흔 아이도 굴툇부릴 때 신다
알넉 집 셋거 착ㅎ기로 동네사름 몬 알주
불 슴젠 흐민 곤기도 전이
눌 놀어 논 보리낭 두어 못씩
즈깁이에 쩍정 ㄱ져 오고
혹교 파ㅎ민 지가 알앙
물항에 물도 ㄱ득 체와 두는 아이라

경 착흔 아이도
주둥아리 무룩ㅎ게 굴툇부린다
배고픈 걸 춤질 못ㅎ영
죄 엇인 부지깁이 딱딱 두드리곡
눌 어염에 등사듬서
느람지만 이레 거석 저레 거석
돛통시 뉘야지 등착만 목둥이로 딱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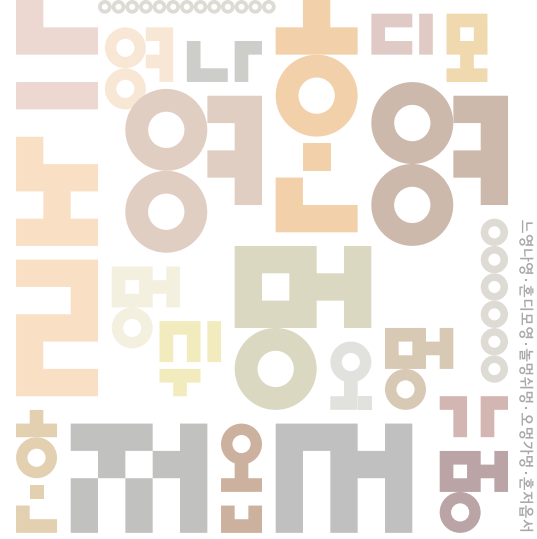
〈표준어〉

심술

강 봉 수

아무리 착한 아이도 심술부릴 때 있다
아랫집 둘째 아들 착한 것은 동네사람 다 안다
불을 때려고 하면 말하기도 전에
가리 가려 놓은 보릿짚 두어 단씩
겨드랑이에 끼어 가져 오고
학교 파하면 자기가 알아서
물 항아리에 물도 가득 채워 두는 아이야

그렇게 착한 아이도
주둥아리를 내밀고 심술부린다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해서
죄 없는 부지깽이 딱딱 두드리고
가리 옆에 곧추 서서
이영만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돼지우리 돼지 등만 막대기로 딱딱



제 6 회



“나 초등학교만 덩겨나도 대통령해실 건디”

현 미 경

나신디는양 할망이 잇수다.
늦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헝 잇곡,
손콍이영 발콍엔 까망헌 흑이 문영 잇곡,
허리가 굽어정 곧작 서지 못헌 그런 할망.

버스 탕 혼자 장에 나강
까망헌 비니루 다섯 개 들렁
콩주름 반찬 헝나.
칼치 반찬 헝나.
밥이영 물이영 헝 먹는 그런 할망.

항시 할망집이 가믄
글쟁이 손에 쥐영 김질메멍
헝루를 보내는 그런 할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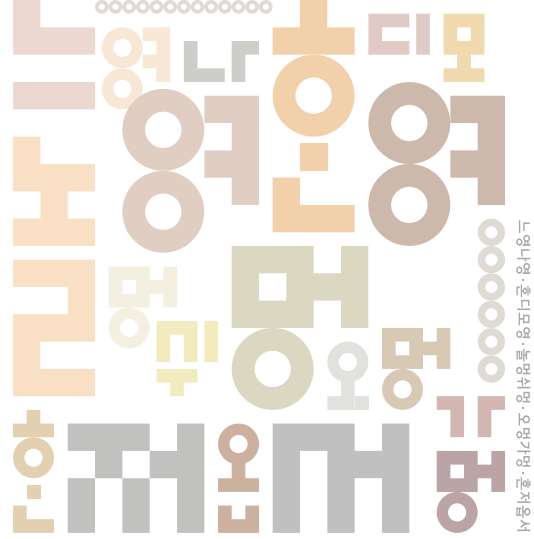
우리는양 늘상 할망신디 영 말헬수다.
'이젠 일 고만허영 놀멍쉬멍헛서.'
할망은양 늘상 우리신디 영 말헬수다.
'나 밋디 나갈 때가 숨쉬어지메.'

바당이영 밋디영 아흔 평생을 살멍,
굽디 고은 양지에 주름이 늘어도 물론.
손이영 발이영 튼살 베겨도 물론.
허리가 굽어도 물론.

그런 할망신디도 꿈이 잇수다.
시계 보멍 시영 분이영 익는 꿈 헛나.
테레비 보멍 글자 헛나헛나 익는 꿈 헛나.
펜 가정 자기 일름 씨는 꿈 헛나.

나신디는양 할망이 잇수다.
아흔 평생을 글도 숫자도 모르멍 산 할망.
'나가 초등 학교만 텅겨나도 대통령헤실 건디.'렌
빙세기 웃이멍 곤는 할망.

나신디는양 그런 할망이 잇수다.



제 5 회



땡~! 으름날 아이스케키쏘곱 행복

문혜숙

답나답나 원, 올히굴이 더운 해도 잊어시카양?

일흐래 나갓당 즈낙이 집이 들어오민 우락우락흔 게 테불영 집이 앓앙 잇
질 못힙니다게.

경흐민 흘 수 엇이, 아까왕 못틀단 에어컨을 틀영, 커신 씨녕흔 브름도 맞
곡 냉장고에 쟁여놔둔 아이스케키도 빨아먹어가민 그제사 어이에 몸이 산도
룩혀여가명 흐쫄 살아짐직혀여마썸.

이추룩 들코롬흔 아이스케킬 빨아먹노렌흐난 엄뜩 튼내어지는 여왁이 흐
나!!!

어느 신부님이 우리 성당 보좌신부로 완 잇일 때, 강론시간에 흐여준 말,
흔 곡지 도시리쿠다.

신부님이 초등학교 삼학년 때랏젠 힙디다.

벳이 과랑과랑 나명 불침엇이 삭삭 더운 어느 으름날이라서양.

혹폴 믹친 후제 땀 출출흐명 집더레 감신디, 그 조작벳 아래 빈직빈직
흐명 승시답게 돈 100원 거리, 500원 거리덜이 하~~영, 막 빼어전 잇어렌
마썸.

소뭇 지꺼진 므음에, 100원 거리 두 겔 들런 위가라 점빵더레 돌아간, 쥬쥬바 아이스케킬 사서양.

식상 행복을 다 앓은 사름추룩, 세로 식식 할르곡 쪽쪽 빨아먹으멍 집더레 가질 안ㅎ여수가?

신부님어멍이 그겔 봐서마썸.

“메께라! 야, 느 돈 어디 시난 그 아이스케킬 산 먹어신디?”

영 들은 거 아니짜.

“스실 영 정ㅎ연 이겔 산 먹없우다” ㅎ는 말엔,

“아니, 스나눔의 즈석이 제우 200원을 앓안 아이스케킬 산 먹없젠 말이 라? 땅에 털어진 거 몬딱 봉강 아정왓이민 더 하~영 상 먹어젓일 거 아니 라?”

영ㅎ 소리에, 먹단 아이스케킬 땅바닥더레 내다붙여뉘, 산 자국에 똥줄나 게 그 디레 딱시 들려가질 안ㅎ여수가.

그 디꺄장 곶은 신부님은, 우리 신자덜신디 들읍디다.

“간 보난 그 남으기 돈이 잇어실 거 닥수과, 엇어실 거 닥수과?”

ㅎ 밋디션 잇어실 거엔 ㅎ는 사름, 또 따른 펜이션 엇어져실 거엔 ㅎ는 사 름, 모도 질로지만썸 대답덜을 ㅎ엳주마썸.

신부님이 ㅎ는 말,

“예, 단돈 100원거리 ㅎ나 엇입디다양!”

그 똥안에 블써라 누게가 완, 썸- 썸어가불어서렌마썸.

그 허망흙은 말로 곶앙 몰르크라렌 흙디다.

고싸 꺄꺄꺄장 아이스케킬 먹으멍 므음에 꺄득앓단 그 행복감이 ㅎ 순간 이 썸 돌아나부러렌마썸.

무사 경 아니ㅎ여시쿠가양!

어멍이 곶은 그 ㅎ 므디에, 식상엇이 맛시러운 아이스케킬 들러 데껴뉘 그 남으기 돈을 좇으래 돌아간 보난, 간디온디엇이 매기독닥ㅎ여실 때 그 두런 므음에 오죽이나 을큰ㅎ여실거짜.

신부님 여왓을 듣노렌ㅎ난, 나나 ㅎ 간ㅎ게 나가 더 막 을큰ㅎ여집디다게.

그 말 끝쨌이엔 신부님이 우리 신자덜신디 곤는 거라마썸.

“나가 이제까지 오래 살아본 건 아니우다만은양, 이걸로 빵도 행복은 부작
흙엇인 풍족흔 디서 오는 게 아닙디다. 나가 체암이 200원을 앗안, 아이스케
킬 산 먹을 땐 시상 그 누게도 불럽질 안혀서마썸. 경흔디 영탁을 부련, 그
한한흔 돈을 몬 앗여당 더 하영 상 먹쟁 헉단보난, 제라흔 행복을 패씩-!헉
게 벌린 엇이대겨분 거라양. 제난, 행복은 헉썰 부작헉듯 흘 때 좇아오는 게
맞아마썸. 너미 하그네 밋밋 냉겨불민, 그게 행복인 중도 몰랑 기냥 지나가부
는 거라양.”

당신이 두린 때 징험흔 일을 앗영, 우리 신자덜신디 영탁부리지 말곡 늣광
누누명 살아가렌 곱아주는 신부님이 나 눈엔 올케로 홀룽만혀 뵈디다. 떡
분에 나도 아름다운 동화쏘곱 추억더레 아련헉게 빠져든, 곱닥흔 시간이 뉘
엇임은 곱을 나우도 엇엇고마썸!!!

바당 엇어시킨 어떻게 살아시코이?

김 성 춘

난양 바당 저끝디 살아지난 바당발을 공꺼로 버시렁 먹으멍 아홉 성젤 다 물질로 뎡여살린 해녀할망이우다. 우리 말젯뜰이 하도 언강부리멍 ‘나가 어떻게 살아와신고’ 골라 도랜 조르난 흐끔 ㄱ라보크매 들어봅서양.

“나가 세 설에 아방이 바르칠 갔단 오꼬시 배가 브름에 불련 바당구신 되 어부난, 어멍이영 곶이 큰오라방 집이서 도사리 흐멍 살아수게. 어멍은 동네에 초상이 나민 ‘어떤 사름은 복도 하그네 신체 모성 영장을 햐신고’ 허멍 애가 그차지게 읍디다. 난 아방이 어떻게 생긴 사름산디도 모르난 큰 오라방을 아방추룩 생각허멍 커수다. 다숫 설 나난 발ㄱ랑에 앗앙 겹질을 매여신디, 조반을 줄바로 못먹어부난 지신이 흘썰도 어신거라예. 큰오라방 뜰이 나상에는 삼춘조캐주만은 나이가 곶아부난 그추룩도 날 구박헉디다게. 밥 먹젠 허민 ‘제게 먹으라, 하영 먹엄저’ 허멍 다울리곡, ‘밥은 흐끔 먹곡, 물은 하영 먹어사 더 크매’ 허멍 존다니 허곡. 이제 왕 두린 때 생각해 보민 배 고팡 올단 일이 젤로 칭원헉니다게. 그땐 어멍덜도 아이덜안티 ‘물도 기리곡 배도 고팡봐사 시상 물정 아느네’ 허멍 배고팡 우는 아이덜을 달래십주.

밭일은 무사 경 흐여도 흐여도 끝이 어신 버친건고예? 땅강생이추룩 밭그랑에 즈름 붙영 앉앙 흐루 종일 지신 검질 매당보민 양지도 모른 아방 생각이 경도 나는거라마썸. ‘나도 아방만 이서시민 흑교 올레는 뵤아 봐실건디’ 허멍 혼숨도 하영 쉬어수다. 경해도 고생허는 어멍 생각허멍 불끈 춤앙 브지란이 굴갱이로 빌레왓을 좇아십주. 손바닥 봉물곡, 독지 알리곡, 종애 저리곡 허는 건 춤을만 헌디, 므슴대로 돌아댁기지 못허는 건 잘도 못 춤으릅디다예.

경흐난 벳들이영 물때 맞청 보말 잡으레 바당 가는 일이 놀레 가는 거추룩 경도 좋읍디다게. 늣보단 제게 가젠 드르당 푸더짐도 하영 해수다. 우리 동네 지집아이덜은 일곱 설만 되민 바당에 강 물질을 배워십주. ‘흐나 두울 셋’ 허민 다 곶이 물에 들어강 누게가 젤로 오래 물 소굽에서 숨을 춤앙 전디는고, 누게가 먼저 돌맹이를 제게 주성 나오는고, 누게가 저 엉장까지 제게 휘영 갔당 오는고 허는 게 물질 배우는 거라마썸. 경 흐당 보민 조연적으로 물질을 헐 줄 알아지는거라양.

열두 설이 되난, 우리 성이 지붕 우에서 젤로 요망진 곡을 흐나 타단 테왁을 맨들어 줍디다게. 속곳 입곡, 죽은눈 쓰곡, 머리에 수건을 줄끈 졸라매난, 진짜 잠수가 된 기분이 듭디다. 구제기를 잡앙 망실이에 담으멍, ‘호오이, 호오잇’ 허는 솜비소릴 질러보난, 제라허게 잠수가 된 거 닮읍디다게. 큰갯물 바당이 문딱 나 꺼나 되는 거추룩 경도 지꺼지카예? 흐루종일 혼시도 쉬지안해영 구제기, 물꾸럭, 바르 잡으멍 어른 물질 흐듯 아기상군질을 잘도 해수게.

열일곱 설 나난, 부산 즈꼴디 이신 ‘밀포’엔 현 디로 초용을 가수다. 3월에 나강 8월 멩질에 오는 거난 댓각 반 년을 집 떠낭 일허는 거주마썸. 선주가 날 두리텐 허멍 돌양가지 말젠 톨라부난 애기업개로 바짝 돌라붙언 곶이 가수게. 경해도 거기 도착헌 후젠 다른 잠수들이영 굳짝 물질을 곶이 해수다.

물이 배랑 쪼지 않은 곳바당서 우미를 즈무는 일어난 벨헌 기술이 어서도, 욕심 있곡 브지런만 허민 되는 거라마썸. 어떨 땐 배를 탕 먼 바당더레 강 난바르 물질을 해신디, 줌수들이 굴매들영 노를 저으멍 잘도 설롭게 노래를 하는 거라예. ‘칠성관을 등뎡이에 지곡, 혼백상질 임댕이에 이곡, 목심 곁영 이 물질 해영, 어느 서방 뎡영 살릴 건고?’ 그 소리가 어떻게 설룬디사, 나도 줌수 어른들이 우는 트멍에 앞앙 곁이 눈물 조배기나 흘려수다게. 물질 허당 보민 안반곶던 나 허리가 정대곶이 다 몰라불어마썸.

그 물질을 마청 집으로 온 후젠, 두 번 다시 육지물질은 가지 못해수다. 육지 사름덜이 날 보민, ‘밥통 봉갓저’ 허멍 메뉴리 삼젠 하도 허난, 나만 소굽으로 ‘어멍 허코’ 저들아전 역불로 톨명다리추룩 슬째기 곱앙 뎡기곡 해수게. 육지선 ‘제주 예즈가 메뉴리로 들어오민 식술을 문딱 뎡여살린댄’ 허는 소문이 낭 이신거라예. 경도 경 혈 것이, 그땐 물질추룩 돈 되는 일이 어서수다게. 줌수들이 악적곶이 물질허멍 돈 벌곡, 쉬는 날엔 주인네 밭일 해정 밥을 얻어 먹영 조냥허곡 허난, 물질이 끝나민 밭 혼파니씩 살만이 돈을 벌엇주마썸. 경헌디 이 일을 우리 큰오라방이 어떻게단 알아분 생이라양. 허근 돈 더 벌영 우리 어멍 기십 피영 배지근하게 살게 허젠 해신디, 오꼬시 곶은 동네 사는 총각안티 날 폴아불언마썸.

시집은 대포 일등 가는 부재집이난 어떻게 들 령이덜이 한 지, 일 부재도 그런 일 부재가 어신거라마썸. 아이고, 나 봉역에 무신 호강혈 일이 이서시라 만은, 시집 보내멍 우리어멍이 ‘아멍 일이 하도 즈름 붙이지 말앙 하르방 할 망 시키는 양 하루하루 살암시민 살아진댄’ 곶아준 말 생각허멍 줌으멍 전디멍 살아수다. 그 밭일을 도말앙 허멍 굳짜 물질도 곶이 허멍, 톨 일곱에 아들 두 성제를 해 곶르멍 낱아십주. 우리가 종손이라부난 왕 할망도 곶이 모성 혼집에 살안마썸. 혼술밥을 먹는 식술이 열두어멍이 넘어부난 출레나 졸바로 출런 먹어져수과게. 매날 동 트기 전이 일어남 말치술 그득 보리썰 솟아놓곡, 감저나 지슬도 저곶디 하영 쳐 뇌동, 우녕팍디 송기 캐당 시쳐만 노

민, 아이덜이 어그라 일어난 살레에 이신 자리젯이영 마농지영 이녁만씩 봉가당 밥 먹는 거주마썸. 쿠싱헌 거 베지근헌 거 흐나 어서도 출레 엇댄 부애내는 사름 어서수다. 입메 쫄르게 주악거리당은 지 야개기만 고느라질거난마썸. 아고 첨, 우리 집이 질 저꿏디 이서부난 지나가단 동녕바치도 정제에 들어왕 지 믋슴냥 솔두깁이 열영 밥 퍼 먹영 가곡 해수게. 그땐 무사정 육지서 왕 돌아댕기는 동녕바치영, 미친사름이영, 상이군인이 경도 금착허게 하서신 고양? 경헌디 이제 왕 생각해보민, 통게에 물 흐 허벅 질어다 놔 똥 어두룩헌 발더레 갈중이 걸치명 내돌당 보민, 얼레기질 못해영 범벅진 머리광 밥 못 먹영 느치름 흘리는 나 서눔가리가 영관 어시 뚜럼이라나수다게.

아방이 원채 일을 잘 흐난 성님이 이녁네 받까지 우리안티 벌어먹으랜 흐거라마썸. 경흐난 낮이곡 밤이곡 일만 일만 흐명 살아수게. 밤중에도 돌이 붉으민 보리를 훑으든, 벳짚을 묶으든, 툄린 감저를 좇으든, 몸뎡어릴 돌탱이추룩 보지란이 굴려수다. 그슬 틀민 저슬에 쇠 맥일 출 배레 할루산에 올라가십주. 오명 가명 허는 시간을 아끼젠, 이틀 사흘씩 드르팍디서 자명 밤을 낮 삼양 일을 해수게. 경 흐 땀 집안일이영 웬만헌 밭일덜은 딸들이 도맡앙 해연마썸. 반공일 되영 딸 일곱이 쭈런이 앓앙 걸질을 매민, 동네 사름덜마다 지나 가명 오명 ‘정열이 어명은 조크라. 일 잘 허는 딸들이 경도 하난’ 허명 잘도 부러웁헉디다게. 난양, ‘일허기 실푸민 먹지도 말아사’ 허명 그추룩 착헌 우리 딸들을 다올리명 부러먹어수다. 경 존다니 흐명 왜올리도 우리 아이덜은 속숨해영 나 곧는양 말도 잘들읍디다예. 아이고, 말젯년썸은 ‘어명 덕분에 학교 땡겍수게’ 허명 빙삭빙삭 웃는거라마썸. 요새 사름덜은 아이덜안티영 존다니 흐는 거 그라 ‘가훈’이랜 헉디다예.

해가 진 여름이 되민 어떻게 짱이 뽀사지게 일이 한디사, ‘쇠로도 못나난 제주예즈로 나신예’ 허던 우리 어명 딸이 설롭게 생각납디다게. 아침에 일어난 동새베기 받으레 내돌아강 어두룩 헉 때 일을 시작했주마썸. 해가 중천이 올라왕 땀이 범벅이 되민 태왁을 정 어그라 바당더레 내돕니께. 물때에 맞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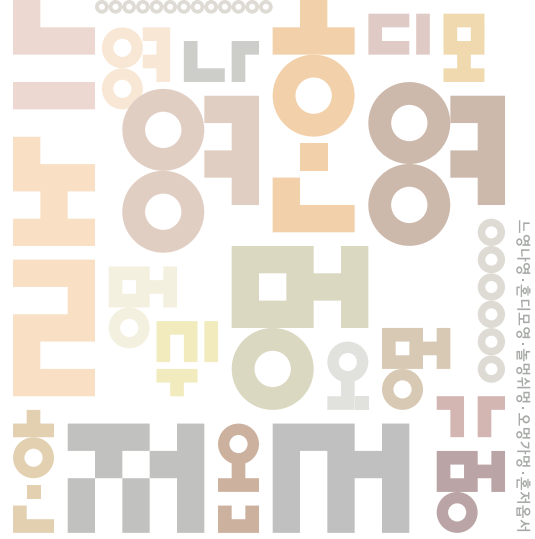
모다든 줌녀덜이영 곶이 숨 버치게 물질해영 망시리 그득 구제기 잡아지민, 오후 너 다숫 시에 다시 밭더레 돌아왕, 매당 건장해 논 검질을 다시 매어십 주. 서너 시간 일허당 보민 해가 서트레 지울곡, 또시 어둑어둑 허민 하늘에 승승 뜬 벨을 보멍 시간 가남해영 집더레 돌아와마썸. 저녁은 딸들이 당변을 정해영 지네덜끼리 돌아가명 흐는 거 닳은디, 나사 밥을 먹영 살아져신디 말 아신디 모르쿠다. 우리 딸덜은 문딱 동네 사름덜이 인정허는 요망진 아이덜 이우다. 우리집 아방은, ‘우린 딸이 일곱이난 살았주, 아덜이 일곱이민 못살 아실거여’ 허멍 경도 딸 사랑을 해여십주. 흐 여름이 지나민 나 몸도 재열추 록 외짝허게 몰르곡 시커멍허게 타주마썸. 생각해보민 사름 산디 쇠 산디 모 르게 일만 흐멍 살아 온 세월이우다.

아이고, 사름 사는 거사 다 비슷허주만은 물질 흐멍 아기 나멍 검질 매멍 살아 온 제주 해녀곶이사 승악허카양? 해녀박물관에 가보민, 나가 물질 흐 멍, 아기 나멍 고생 헛 소릴 들어질 꺼우다. 어느제 산디 젊은 사름덜이 사진 기영 녹음기랜 허는 거영 가져완 나가 곶는 소릴 기계에 담양 가수다. 할망이 출람생이추록 눅든댄 허지 말앙 그 소릴 흐 번 들어봅서양.

‘아기를 배여도 나는 날꼬지 열 털 동안 굳짜 물질을 해서. 아기가 나오민 이틀만이 다시 물에 들어가곡 허멍. 경헌디 아기가 빠져불민 배가 흑씩해영 자꾸 허천디레 자빠지곡 히엿뜩 히엿뜩 허는 거라. 흐는 수 어시 수건으로 존 동이를 줄끈 줄라매영 물질을 했주. 흐루는 물질흐는디 애깃배 맞췄 배가 막 아파오는 거 아니라게. 촌당 버천 물에서 나완 막 서둘령 집으로 내돌았주. 동산 흐나를 더 넘어서 우리집인디, 오꼬시 아기가 막 털어짐직 흐는 거 아 니라. ‘아고게, 설론 아기야. 흘썰만 촌았당 나와도라 이. 질 바닥에 털어지 민 니도 고생, 나도 허주 아니냐. 게무로사 저기 배려지는 집꼬지사 못춤으크 냐. 어떻 준더보게이.’ 흐멍 달랬주. 흠마 마당에서 나왓직 헨게마는, 가이가 효잔고라 저녁밥 먹언 흘썰 더 싶단 나와 쥔. 아이덜이 그추록 다 착해연, 문 딱덜 저녁에 나와준 거 닳은게. 생각해 보민, 나 혼자 물질흐 게 아니라. 우리

아이덜이 모다들영 다 곶이 도와주난 혼거게.

혼 시상 사는 거, 혼 순간이라. 바당 어서시민 어떻 살아시코이? 바당 밭, 춤말로 고마운거여이! 아명 생각해 봐도 순전히 바당 보름에 구 남매를 다 큰 공부시켜져서. 물질은 목숨을 내놓 혼는 거난 잘도 위험헌 일이주만은, 혼 시상 살아가는 게 싸는 물 이시민 드는 물 이신 거 아니라? 아명 죽어점직 해도 춤으명 전디명 살암시민 다 살아지는 거주게. 우리 어명이 살아온 거추룩 즈식 혼나 밍영 살당 보난 혼 세상 잠깐만이 살아져서. 나가 올해로 구십넷인디, 요새곶이 정광혼민 백설꺀진 살아짐직 해여. 우리 동네 부택이 어명은 노망도 안 허명 백 혼설꼬지 살았주게. 즈식덜 고생시키지 말앙 오몽혈 때꺀지 나 손으로 밥해 먹당 혼 사나을만 드러녕 우리 아방 이신 저 천당드레 가져시민 잘도 조크라. 이게 나 분시 어신 소원이주!”



제 3 회



와흘 본향당의 기억

반경옥

멥질은 잘들 지냅디가? 난양 와흘 한칩으로 시집온 한칩의 셋메누리우다.

그때만 햏여도 시집오랑보난 굿햏는 집들이 합디다게. 성당을 다녀나부난 굿햏는 사름들이 이해가 안웁디다게. 시집 온 첫 해, 멥질을 햏여먹곡 정월 브름 ㄱ리에 시어멍신디 전화가 옵디다게. “셋애기 어멍아, 널 아칙이 당에 가살거난 제물출리게 이즈낙 오라이!” 당이 뭇 말산디 몰라도 짐작치기로 어디 가사홀로구나햏연 “무시거 상 같건 어수가?” 햏 들어수다게. “엇다. 나 똥착햏다. 다 시난 그냥 오민 웁다.” 햏관 버스 시간 맞추아네 어가라 촌으로 가 십주마썸.

정지에 아장 생선굽곡, 콩ㅁ물 삶곡, ㉠새기 삶곡햏여네 구들에 아장 돌레떡 멥글곡 햏여신디 적갈만 어십디다게. 제사음식 곶은디 적갈은 엇관 “궤기 적은 올리지 앓햏니까?” 햏난 안올리는 이유를 ㄱ라줍디다(이건 후제 ㄱ르쿠다). 아! 그전이 “독새긴 무사 올렘수가?” 햏난, 시어멍 곶는 소리가 몸에 두드레기 나지마랑 ㄱ 독새기 ㄱ찌 멘들락햏랜 올린댄 햏디다. — 두드레기 햏난 생각나는게 이신디, 시집장 얼마 안웁영 온 몸에 손가락만씩 훑은 두드

레기가 피영 얼마나 근지러운지 핏독 오르게 북북 굽어가난 시어명이 통시
율이 세와냥 훑은 소곰을 나신디레 뿌리고 쉽사리(비치락)로 온 몸을 쓸어가명
무시거엔 입담을 토티다. 경해가난 산디 흐꿈 셔가난 낮아난 기억이 남수다.

뒷날 아직 인칙 일어냥 준비흔 제물을 딱로딱로 구덕에 싹씩 누누왕 담아
네 당으로 가는다, 브지런흔 예펜 삼촌네들이 별써라 와흘본향당 제단에 진
설혀여동 아장 무당흔티 흔해 운수를 보기도 흐곡, 해영흔 속지영 실꾸레미
를 낭에 톱아 무끄기도 흐곡, 오색천을 묶기도 흐곡들 흐명 정성들여 소원을
비는 모습들이 비치는다 시어명은 나신디 속지 주명 “찌디강 걸라.” 흐관 성
당에 다녔던 난 므음이 너미나도 심란흐곡 어떻 해사홀지 주악주악거리난,
“셋애기어명야! 흔저 낭가지에 무끄곡 곱게 절 흐여살겨여.” 흐관 대망생이
가 히여뜩 하니 어지러와신디, 시어명 말쑤를 아니 들을 수도 엇곡 흐영 늑
흐는양 가심에 속지를 대엇당 빈 낭가지 츠장 묶어동 팽냥 앞이 절을 흐곡
심방앞의 아지난 심방이 쥬을 상 우터레 뿌렷다네 나신디 심져주명 “썹지마
랑 누리라.” 흐는다, 생쥬을 썹지 앓고 물도 엇이 누리젠 흐난 입안에 침을
꺾득 궤게흐영 제우사 몇 번에 걸청 냉기곤 흐여수다.

이치룩 나 흐는 양을 생각흐민 어리석고 미개하게 느껴졌주만, 시어명 앞
의선 아난치룩흐영 넘어나수다게. 해마다 정월보름 아싯날이민 제물을 준비
흐는다 그 때마다 적같이 안올라가는게 궁금흐연 여쭙난 와흘본당에 전해오
는 이악을 흐여줍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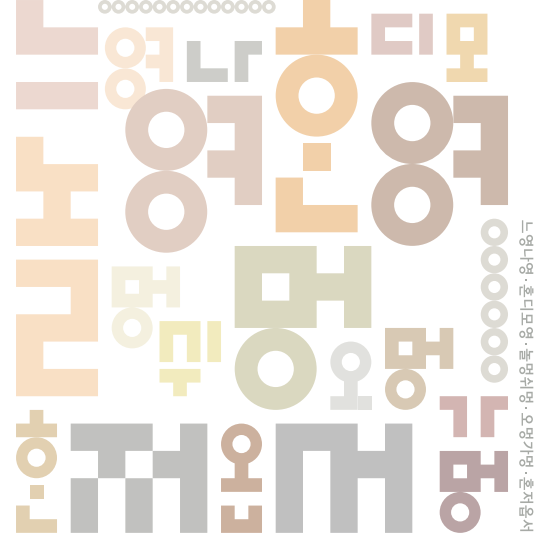
연날 사냥흐명 사는 외다리 하르방이 저슬들영 눈이 하영오난 노리를 잡
젠 구멍이를 파고 코를 놓았젠마썸. 노리가 잡혀신가 보래가신디 노리랑 마
랑 구멍이도 코도 엇어진걸 보고 놀레언 주변을 보난, 노리영 산짐생들 스이
에 웬 젊은 도령이 셔신디 이녁이 송당 금백주의 11번째 아들 백조도령으로
사냥을 관장하는 신이엔 했덴마썸.

백조도령은 자기가 산짐승을 다스리는 신으로 마을을 지켜주첸한, 외다리 하르방이 서정승따님 애기가 불씨 좌정행 이시난 안뵈덴 한 도령이 그 여신에게 남편이 시뵈 들엿덴 흠디다. 하르방이 엿댄고르난 중매를 흠셸영 바로 혼인을 영 마을에 머물멍 두가시가 와흘본향당의 부부신이 뵈젠마썸.

두가시가 스랑영 살단보난, 땃달 후재 서정승따님 애기가 아기사 설어 신고라 돛궤기가 먹구정 영엿덴마썸. 듄삭한 돛궤기 혼점이 먹구정 영여도 부정한 음식이라 먹진 못헐거고 영여내 생각 끝에 도새기 터럭 땃 개만 뵈아 당 불에 그슬린 내웁샬만 맡아신디, 외방가난 백조도령이 도새기 그슬린 내웁살에 부애가 낭 금기를 깨뜨렸덴 영명 서정승따님 애기를 신격을 강등하고 내쫓아부렸덴마썸. — 경한 이유로 이제 7장 제단에 드새기적은 안올린덴 마썸.

팽나무 신목이 있는 신당 중앙에서 밀려난 서정승따님 애기는 동쪽 자그만 구석방 같은 제단에서 신앙인을 맞이한덴 햄신디, 경해도 와흘선 아지망들이 사냥을 관장하는 백조도령 제단 앞보단, 생업과 산육에 치병을 관장하는 서정승따님 애기씨얏더레 제물을 하영 올린덴 햄수다.

아직도 와흘 본향당에선 팽나무에 오색천을 매달고 마을의 무사안녕과 생업의 풍요를 기원하는 전통이 전해점수다.



제 2 회



무사 유관순이 돌궐일 맞아야 됩니까?

김혜정

천안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이상헌 서명운동이 벌어짐수다. 천안시영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가양 유 열사의 3·1운동 만세시위 내용을 빼여분 고교 한 국사 교과서 줄바로 잡아도랜 요구허영 나서수다.

그 역사 현장이던 천안에선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쭈. 순국일(28일)이 다가와가난 서명 열기는 더 뜨겁수다.

교과서 진보-보수 논쟁이 유 열사안티 옮겨 붙은 모양이우다. 한 보수 언론이 지난달 말 8종의 검정 교과서 중 4종에 유 열사 내용이 빠졌댄허명 시작되수다. 요 고루에 한 교순양 학술모임이서 “해방 후제 친일파가 유관순을 영웅으로 맨들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부채질해수게. 그 배경으로 2009년 정모씨 논문 ‘3·1운동의 표상 유관순의 발굴’이 거느리왕상햄수다.

논문은양 유 열사가 해방 후 갑자기 추켜올라간건 친일 행적이 이신 이화여고 인사들이 면죄부를 받아보젠 일부러양 추구려세우멍 시작허엿댄 고람수다. “1947년 맨들어진 기념사업회도 우익 중심으로 만들어져수다. 가이네가

지네가 잘못하여진걸 씻엉 정치적·도덕적 권위를 갖젠 유관순을 좇아냈다”는 것이우다.

틀린 말이 아님주. ‘양친이 피살된 이화여학생의 체포’로 당시 미주 교포신문에 났주만, 일제강점기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어십주. 경허민 이제꺼정 나온 유관순 전기와 영화가 밀도 끝도 어시 맹글어진 거짜. 정치허는 사름덜은 항시 역사를 이용해보젠 유관순이 필요했을 수도 이수다. 경허주만 역사적 사실은 엄연히 살아있주마썸.

3·1운동은양 식민지화되영 9년 만이 일어나수다. 1차 대전 후제 식민지 상황이 끝날거에 대한 기대가 계기가 되여수다. 종교계 지도자 33인덜이 헌 독립선언이 만세시위로 전국에 들불추룩 번져수다. 많은 사름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수다. 그사름덜은 일본 압제에서 벗어날 어떤 국가 탄생을 원해시쿠광. 봉건국가 대한제국의 부활은 아니우다. 곧바로 상하이에 ‘제국(帝國)’이 아닌 ‘대한민국(民國)’ 임시정부가 맨들어져수다.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는 여기 이십주.

7000여 명 동포가 살해당허고, 5만여 명이 옥에 갇히곡, 많은 사름이 고문을 당해수다. 그중이 유관순이영 가이 부모가 이서수다. 부모는 시위 현장에서 즉사해수다. 이걸 목격헌 유 열사가 헌병주재소에서 소장 먹살 잡앙 흔들어수다. 삼춘 유중무(46세)는 “때려죽이겠다”며 달려들어수다. 조인원(56세)은 우통벗영 소총을 잡아수다. 이들 세 명이 시위자 중 최고형을 받아수다.

유 열산 운(運)이 좋아수다. 이화학당 은사였던 박인덕을 감옥이서 만나십주. 또 김성수(동아일보 사장, 부통령 역임)의 부인이영도 고찌 수감생활을 해수다게. 그들은 살아남앙 유 열사를 추억햄수게. 미군정 경무국장 조병옥도 아우내시위를 주도한 아방(조인원)을 기리기 위해 유 열사 추모사업에 동참해수다.

영행 애국처녀 유관순은 탄생해수다. 그루후제 유 열산 재판정에 의자를 던
정 7년형을 선고받고, 옥중 투쟁 끝엔 사지가 절단땡 무참하게 죽었젠 부풀려
져수다.

거품빼기 작업이 10여 년 간 진행돼수다. 아우내시위는 유 열사 혼자 주도
한 게 아니어십주. 16세 앳된 소녀도 아니어수다. 나이가 두 살 높여져수다. 7
년형이 아니라 1심 선고량(5년형)이 줄영 최종 3년형이 돼수다. 순국 후제 가
족한테 넘겨진 시신엔 사지 절단 상태는 아니어수다.

유 열사가 어떻 탄생허였든갑세 그는 우리한테 조상덜 뜨거운 독립정신을
일깨우는 존재우다. 돌멩일 마져야 헐 대상이 결코 아니라마썸. 전태일 열사
가 70년대 산업화의 아픈 역살 고루쳐주듯이.

“대한항공 운임 올리는 호설 쓴 항공도 문땀 다”

현 승 도

대한항공이 국내선 항공 운임을 올린 아시아나항공도 고찌, 호설 혈혈 항공사꼬지도 올리는디 혼디덜 했쥔 햄신게마썸.

호설 혈혈 항공사 국내선은 제주에 거의 오는 건디, 요번에 항공료 올리믄 1천만 관광객이 오는딘 버~얼정헌 신호가 들어오는 거주마썸... 틀렸쥔 허는 겁주!

제주도허고 제주도의회에선 어떻덜 혈 건고예~

호설 혈혈 에어부산이 다음달 초호루부터 국내선운임을 올린댄 11일 골았 쥔 험디다.

업계 1위 대한항공허고 아시아나항공이 고찌 올린, 바로 후재 올린 겁주. 국내 항공사들의 국내선 운임을 다다닥 올릴거랜 생각해신디 경 된겁주. 안

될 리가 이수과제..

에어부산은 다음달 초호루부터 국내선(부산~김포, 부산~제주, 김포~제주) 공시운임을 평균 9.7% 올리겐 했젠 골아수다.

경 허난 에어부산의 국내선 운임은 주말(금~일) 평균 9.4%, 주중(월~목) 평균 10.4%, 성수기 평균 9.1%가 오르고예!! 경허난 최소 4천800원에서 최대 9천700원이 요금이 오르게 되는 겁주.

경 해도(9월1일) 이달말까지 비행기표 사민 올르기 전 요금으로 해주켄 햄신게마썸.

에어부산 측에선 회사 만들영 지금까지 막 어려와부난 어쩔수 엇젠, 막 지름값도 올리고, 다른 것들도 막 올라부난..... 경해도 올리는 건 성수기 지낭 올리겐 골읍디다.

업계에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서 올린난 에어부산에서도 막 잘되신게 허멍 고찌 올린거랜 허는 겁주마썸.

호썰 헐허게 털 허는 항공사 중 이스타항공도 넘은 달 3일 할증과 성수기 운임 등에서 7% 수준으로 올려부난 막 큰 항공사들허고 거의 고타져 부럼수다. 차이 어서마썸.

호썰 헐허댄 해나신디 그것이 그거우다.

에어부산도 혼디들영 허여가난 호썰 헐헐 항공사들 문짝 올릴거랜 골아도 헐 말이 엇인 겁주.

올리켄 허는 금지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똑 고트난 이진 뽕짜그네
허는 거랜덜 골암수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달 18일부터 국내선 운임(일반석 기준)을 지금까지
받은 금지보다 주중(월~목) 평균 6%, 주말(금~일) 평균 12%, 주말할증·성
수기 평균 15% 등 전체 평균 9.9% 올린 겁니다.

경허난 김포-제주 노선 존존헌 좌석은(일반석)은 기존 7만3400원(주중
기준)에서 8만2000원으로 올랐고예, 진진하고 큰(프레스티지석)좌석은 기존
11만3400원에서 14만2000원으로 올린 거마썸.

아시아나 항공도 이달 3일부터 국내선운임을 대한항공과 똑 고튼 9.9% 올
려십니다.

경허난 사람 이실 때 엇일 때 차이를 텅 할인운임(월~목)은 평균 6%, 기본
운임(금~일)은 평균 12%, 성수기 및 탄력할증운임은 평균 15%씩 각각 올린
거마썸.

멧 프로 멧 프로 말고 요금으로 골으민 주중 요금은 7만3400원에서 8만
2000원으로, 주말요금은 8만44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주말할증요금은 9
만2900원에서 10만7000원까지 쭉~ 올란마썸.